

할렐루야!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어둠에서 방황하고,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을 빛의 자리로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낙태, 미국 중간선거 결과 가를 분수령!

CT, 미국사회 양극화 쟁점 5개 주에서의 낙태권 공방 소개

미연방대법원이 거의 50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던 판례를 공식 폐기하면서 미국 사회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대법원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면서 연일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 공화당 등 보수진영은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의회 차원의 낙태 제한법 도입까지 추진했다. 특히 대법

원의 결정은 이번 11월 중간선거와 맞물려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라고, '크리치터니 투데이(CT)'는 예상한다(Five States to Vote on Abortion Rights This Election Day: Christian pro-life activists have their eyes on a record-high number of ballot measures, including state constitutional amendments).

거의 50년간 낙태권을 인정해온 판례를 뒤집은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을 확실히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하고 있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진보진영은 연일 연방대법원은 물론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예계 스타들도 대법원의 결정에 분노를 쏟아냈다.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대법원 결정을 찬성하는 보수진영도 '지지' 집회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찬반 집회 참가자 간에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미국 문화전쟁(culture-war)의 불길에 휘말음을 끼얹었다"고 표현했다.



스캐틀라이나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체리 비슬리는 "우리는 헌법의 권리를 위한 분수령의 시점에 직면해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따라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5개 주에서 낙태권에 대한 찬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서, 일부 주에서는 태아와 모든 발달 단계에서 태어난 유아의 생명/법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지만, 다른 주의 유권자는 주 헌법에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성문화하고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허

용할 수 있게 된다. 크리스천들은 미시간과 캘리포니아에서 제안된 투표법 개정안이 낙태권을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시간에서는 진보 성향의 미시간 주지사가 낙태권 보장을 위한 선제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50·민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에, "개인의 사생활 및 신체에 대한 자결권을 보장하는 미시간주 적법 절차 조항에 따라 낙태권을 보호하려 한다"

면서 "낙태 금지에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평등보호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미시간주는 1931년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 이외의 낙태를 중범죄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임신 22~24주 이전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리면서 휴면 상태가 됐다. (2면으로 계속)



목회자를 향한 폭력, 교회 안에 있다!

치치리더스컴, 교회안에서 일어나는 목회자를 향한 폭력 유형 소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성도들 중에서는 '목회자가 저지른 폭력성'을 폭로하느라 바쁘지만, 정작 자신이 '목회자를 향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은 잊는 경우가 많다. 한 목회자는 최근의 사례들을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교회 내 폭력 사례에서, 나는 목회자를 헐뜯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회중들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많이 듣는다"라고 답했다.

따라서 니콜라스 배트지그(Nicholas T. Batzig, 조지아주 Richmond Hill에 있는 New Covenant Presbyterian Church의 담임목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목회자를 향한 폭력 5가지 위험 신호들로 소개한다(Is Your Church Committing Pastor Abuse? 5 Warning Signs).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보살피야 할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목회자들을 지역교회에 세우셨다. (히 13:17; 벰전 5:1-3) 하나님이 부르신 일,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렇기에 목회는 높고 고귀한 소명이라 말할 수 있다. 한 기자가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의료계를 떠난 것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거기에 존스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받았습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복음의 전령으로 부르신 것인 간에게 있어 최고의 영예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성도들이 목회 사역을 향해 가져야 할 시선이 아닐까? 물론 목회 사역에는 중대한 도전이나 위험들이 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자신을 기능적으로 최고 경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역을 전문화해야 할지도 모르며, 그러다 보면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강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3면



푸른초장 김성일 목사 4면



시와그림 송일용 목사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치위탁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 인내 - 치아임플란트
- 구강외과/틀니
- 보철치료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아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필수전기감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 Email: laguesthouse@live.com

뉴욕효신장로교회 제3대 김광선 담임목사 위임예배

“뉴욕효신장로교회가 제3대 담임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여정을 힘차게 출발합니다”

일 시: 2022년 11월 13일(주일) 오후 3시
장 소: 뉴욕효신장로교회 본당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김광선 위임목사

사랑의교회 전도사(고 옥한흠 목사담임)
육군5사단 군종목사(군종 63기/ 대위)
사랑의교회 부목사(오정현 목사담임)
LA 사랑의빛선교교회 선임부목사(윤대혁 목사담임)



발행인 칼럼

지도자가 없었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이태원에서 12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지난 10월 마지막 토요일, 한창 주일 준비를 하던 나에게 아내가 들려준 소식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아내가 뭔가 잘못 들었는지 하면서 관련 소식을 찾아보았다.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없었다.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즐기려 했던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엉키고 넘어지면서 압사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도되는 사망자와 부상자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쓰러져 죽고 다치다니 이 무슨 비통한 일인가. 그날 이태원 부근에 10여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 그날의 모임은 누가 달리 주최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가이드도 없었다고 한다. 거기에 군중(群衆)은 있었으나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곳에는 혼란을 통제할 사람도 없었고 위험한 상황에 방향을 제시할 사람도 없었다. 이번 사건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여러 외부적 요인들이 많이 얽혀 있었겠지만, 내부적으로도 그 급박한 어려움 가운데 발 빠르게 지도력을 발휘한 청년의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지도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 때 그 배에는 선장이 있었고 여러 선원들도 있었다. 그들은 방송으로 학생들의 행동지침을 전달해주었다. 하지만 그 행동지침은 필요한 조치에 정반대의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해놓고 자기들은 앞다투어 배를 빠져나갔다. 그들은 지도자의 이름과 지위는 가졌어도 진정한 지도자는 아니었다. 책임감이 결여된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더 큰 혼돈과 고통을 자아낸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의와 공평이다.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는 정의와 모든 어려운 일에 최후의 일인(一人)이 되는 공평이 있어야 한다.

자녀들을 잃은 가정의 아픔과 청년들을 상실한 사회의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이 아픔과 고통을 품고라도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다음 세대의 지도자 양성이야. 엘리야를 보라.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자기 시대만을 잘 살고 마감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뒤를 이길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셨다. 마침내 엘리야보다 감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세워졌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청년 때부터 모세로부터 지도자 수업을 성실히 받았을 뿐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지도력을 함양(涵養)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할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출 33:11) 탈(脫) 권위를 주장(主唱)하며 모두가 권위자, 지도자를 무시하는 시대이지만 온갖 난관을 뚫고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이 내일의 교회 지도자를 키워낼 때 교회와 시대의 앞날에 소망이 있게 된다.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우선 채우려는 시대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는 젊은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파티의 장소는 청년들로 미어터지지만 예배의 자리에 젊은이들은 텅텅 비어간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나인성의 죽은 청년조차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은가. "청년아 일어나라"

소그룹 사역, "말씀"이 우선이다!

리더십저널, 레이드스미스 목사 "말씀 중심의 대화를 장려하는 방법" 소개

성령께서는 인도자의 소그룹 인도를 통해 소그룹 구성원들의 마음에 말씀의 능력을 갖추게 하고, 소그룹의 대화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신다. 그렇다면 소그룹 인도자가 모임을 진행할 시, 소그룹 구성원들이 지속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장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그룹 사역 단체인 Communities of Purpose for the Small Group Network를 이끌고 Christ Fellowship Church를 섬기는 레이드 스미스(Reid Smith) 목사는 "말씀 중심의 대화를 장려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5 Ways to Encourage Word-Driven Conversations).

Purpose for the Small Group Network를 이끌고 Christ Fellowship Church를 섬기는 레이드 스미스(Reid Smith) 목사는 "말씀 중심의 대화를 장려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5 Ways to Encourage Word-Driven Conversations).

1. 기도하라!

인도자는 소그룹 구성원들이 성경을 공부하며 말씀을 나눌 때, 진리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가르치라!

인도자는 소그룹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대한 궁극적인 리트머스 시험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안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3. 다루는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구성원)'을 의도적으로 참여하게 하라!

인도자는 소그룹을 통해 삶의 문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 가



운데 '모든 사람(구성원)'을 의도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럴수록 소그룹은 역동성을 띠 것이다.

4. 누군가 비신학/성경적 진술을 한다면, 내용을 정정하고 사실을 명확하게 하라!

인도자는 구성원 중에 누군가 비신학적 진술을 할 때, 대화를 잠시 멈추고 내용을 정정하고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의사가 전달되며, 바른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성숙을 이룰 수 없다.

5. 어려운 본문이 있다면, 본문을 더 깊이 파고들라!

인도자는 본문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각종 참조 자료를 사용해 본문의 의미와 충분히 씨름해야 한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가장 우선으로 삼되, 사전에 주석과 사전 등을 활용해야 한다.

낙태, 미국 중간선거...

(1면에서 계속)

이제 오대호 주의 유권자들은 "임신과 낙태의 자유"가 미시간 주 헌법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발의안 3의 언어는 성인 여성에게 낙태 접근을 넘어선 결과에 대한 문을 열어준다.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는 시민의 대변인인 크리스틴 폴로(Christen Pollo)는 미시간 투표 법안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낙태와 불임수술을 포함한 임신과 낙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것은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과 무신론자의 문제입니다". 진보적 낙태 반대 봉기(Progressive Anti-Abortion Uprising)의 홍보 이사인 캐롤라인 스미스(Caroline Smith)는 말한다.

또 폴로는 "우리는 이것이 당파적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압도적으로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진생명 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펙트럼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오'로 투표하고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번 선거를 예측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캘리포니아 헌법 수정안을 결정할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태아가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2002년에 통과된 주정부의 생산 사생활 보호법(Reproductive Privacy Act)은 여성이 "아이를 낳거나 낙태를 선택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투표 발의안의 반대자들은 새로운 법령이 낙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후기 낙태의 문을 열어준다고 경고한다.

버몬트

버몬트에서 유권자들은 "개인의 생식 자율권은 자신의 삶의 행로를 결정할 자유와 존엄의 핵심"이라는 헌법 수정안을 결정할 것이다.

낙태는 이미 주에서 합법이며, 주 헌법에 낙태를 추가하면 미래의 유권자들이 현행법을 뒤집음으로써 낙태를 폐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버몬트주 투표 발의안도 통과하려면 과반수가 필요하다.

몬태나

몬태나 주에서 생명 보호 단체는 낙태 후 태어난 어린이를 포함하여 산 채로 태어난 모든 어린이를 보호하기를 희망한다.

이 법은 낙태 시도, 유도분만, 제왕절개 등의 방법으로 산 채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 전문가에게는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Family Research Council에 따르면 현재 18개 주에 유사한 법률이 있다.

켄터키

켄터키주 유권자들은 켄터키주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시민들에게 낙태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헌법 수정안 2를 결정할 것이다.

다른 4개 주(테네시, 앨라배마,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는 이미 주 헌법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헌법 수정안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전문지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지난달 4일 "판례를 뒤집은 여름부터 전국 유권자 사이 낙태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며 "주지사가 향후 낙태 권리에 관여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낙태 이슈는 주지사 경선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다"고 예측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목회자·사역자

복음과 성령 세미나

Gospel and the Holy Spirit Seminar for Pastors



이지용 목사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

New York by the Holy Spirit!

몇년동안 세계에 전례없던 전염병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일어나야 함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이때에, 주의 귀한 사자 이상목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복음과 성령집회를 갖고자 하오니 뉴욕의 온 성도님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의 장소로 정중히 초청합니다.

목회자 세미나 Pastor's Seminar

11월 16일(수) 11월 30일(수) 12월 7일(수) 12월 14일(수)

오전 10:00 뉴욕갯세마네교회

평신도회 성회

11월 15-16일(화,수) 11월 29-30일(화,수) 12월 6-7일(화,수) 12월 13-14일(화,수)

오후 7:30 뉴욕갯세마네교회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 성령컨퍼런스 주강사 선교사 복음과성령집회 주강사 사모영성세미나 주강사 KAPC, 장로교소속 목사 Zoe Ministries USA 대표 이어리한인장로교회 담임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 이지용 목사)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문의: (516)520-2004

목회자를 향한 폭력...

(1면에서 계속)

또 어떤 목회자는, 자신을 바쁜 사역에 투자함으로써 자기 영혼의 필요는 무시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 어떤 목회자는, 유일한 왕이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색하게 하는 방식으로 목회자만을 추켜세우게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교회에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 앞에서 실수할 수도 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장로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은 때로는 현명하게 행동하지 못하며, 때로는 중대한 결정 앞에서 주춤거리기도 한다. 결국 목회자 역시 유한한 지혜를 가진 죄인일 뿐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지혜를 가진 죄 없으신 분은 단 한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양 떼를 위해 성실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인도하고 성사를 행할 사람으로 사람에게 기쁨을 부여하신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 떼의 건강과 안녕에 필요한 목회자들을 목자들로서 임명하신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게 매우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비난은 교회가 잘못된 목회자들에게 바르게 책임을 묻지 않은 일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폭력 혐의는 장로나 직인 또는 교회 성도들을 괴롭힌 목사의 이야기에서 발생해왔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있는 목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사건에 연루된 교회는 대체로 이 일을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온 것이다. 즉,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변호하고, 이 사건을 법적으로 가지고 가 절차에 맞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교회 안에는 여성을 억압하고 그들이 가진 은사를 축소시키며 '과잉 남성성' 또는 '가부장제'와 관련된 부정적 문화를 조장해왔다는 비난도 꽤 많다. 아무리 정당한 형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목회자가 저지른 폭력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사건들과는 달리, 요즘 온라인에서는 목회자들을 향해 손쉽게 손가락질하며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목사의 폭력성"을 폭로한다는 일념에 갇힌, 자칭 선의의 교인들은 눈에 띄지 않게 "목사를 향한 폭력"의 울무에 빠지기 시작한다. 한 목회자가 최근 일어난 사례들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목회적 폭력 사례에서, 목회자를 헐뜯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회중들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었다."

목회자에 대한 모든 비판이 정당하

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향한 폭력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비판과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를 향한 폭력의 위험에 적절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폭력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례 중 일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를 향한 폭력을 내포하는 다음 다섯 가지 현실을 보자.

1. "목회자를 향한 폭력"은 교회나 교단을 통해 하나님이 안수하신 직분자에 대한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 무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교회의 임원이나 교단 지도자에 대해 모욕적으로 말하는 방식에서 잘 나타난다. 목회자에 대해 당신이 말하거나 사용하는 대부분의 표현이 본질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면, 당신은 아마도 목회자를 향한 폭력의 울가미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끊임없이 비판만 한다면 당신이 하는 일은 그들에 대한 학대일 수도 있다.

실제로, 성경에 충실한 목회자들 중에 끊임없이 악한 자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공격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다. 당신이 기도로 목회자들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그들의 말이 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목회자 학대를 부추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목회자들은 분명 어떤 일이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목회자들이 무조건적인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목회자를 향한 폭력"에는 목회자에게 위임된 역할이나 성경적 권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자신이 교회에서 진행하고 싶은 것들(프로그램, 모임 시간, 특정 음악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는, 교회의 일들에 대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발견한 모든 문제들을 다 목회자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교회에 불만을 품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그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이다. 그들은 때때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겠다고 목회자를 위협하곤 한다. 슬프게도 많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교회를 원한다. 때로는 자신의 영혼에 영적인 결핍이 있을 때, 쉽게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만약 교회에서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목회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목회자를 향한 폭력에 가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목회자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정의된 직업 설명이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

해주거나, 교인들의 변덕이나 욕망을 충족시켜주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양 떼의 말을 듣고 부름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지역교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행 6:1-4) 여기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필요를 위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디아포라'(선과 악의 문제로 나뉠 필요가 없는 비분별적인 일들)이다. 그러한 경우,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의 권위를 지지하고, 교회의 평화와 순결을 배우기로 약속해야 한다.

만약 목회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하는 교인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도 계속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목회자를 향한 폭력"은 교인들이 목사의 '급여', '휴가' 또는 '상황적 특권'에 대해 불평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다.

개신교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마치 목회자들이 "짚 없이 벽돌을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 목사가 가능한 한 많은 일들을 해내면서도, 가능한 한 적은 사례비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목회자가 SNS에 가족들과 함께 보낸 휴가 사진을 업로드할 때, 뜬금없는 논평을 나누곤 한다.

'PCA 교회 규례서'(26.4)에서 회중이 목회자의 사역 계약을 연장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당신이 세속적인 염려와 직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당신에게 1년에 \$()를 지불할 것을 계약하고 의무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들 중에서는 고액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신교 목회자들은 분명히 저임금을 받고 있다. 나는 어떤 목사가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그 목사의 보수가 많다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4. "목회자를 향한 폭력"은 불만을 품은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게 자신의 불만을 나누며 '선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사례는 너무나도 일반적이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이렇게 경고한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히 12: 15)

이러한 일들은 불만을 품은 교회 임원들 사이에서, 혹은 소그룹에서 뒷담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것은 지역 사회의 사람들의 가벼운 입에서 옮겨진다. 험담, 분열적인 말,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들로 목회자가 겪게 되는 모욕적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9면으로 계속)



시론

신앙의 탄성!



은하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1981년 여성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종신 교수직에 임용된 엘렌 랭어(Ellen J. Langer)는 70-80대 노인 8명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의 집은 평범한 가정집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집의 모든 것은 20-30년 전의 스타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시계 거꾸로 돌리기'의 추억여행에 초대된 것이었는데 이 여행에는 2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58년으로 돌아가 그 시대를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벤티', '복복서로 진로를 돌려라' 등의 영화를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보고, 로즈메리 클루니의 노래와 냇 킹 콜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집안일을 직접 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신도 힘든 노인들은 내켜하지 않았지만 노력해서 청소, 빨래, 요리 등을 직접 해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호자의 도움 없이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노인들이 시간이 지나자 혼자 옷을 입고, 계단을 내려가고, 식욕도 크게 늘었습니다. 마치 몸과 마음이 진짜 20-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젊음과 건강을 단순한 지난날의 추억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내 마음속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다면, 정신은 육체의 힘듦과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피온 글) 사는 게 참 바쁘네요. 이 바쁨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우리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제대로 산다는 의미와 가치, 인생의 꿈과 목표 등등은 어느덧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부르면 가는 인생 안에 매몰되어지고 사치스러운 감정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잠깐이지만 이 가을에 '시계 거꾸로 돌리기'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등등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의 작가 '모치즈키 도시타카'는 행복한 사람들은 다음 3가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감사하고, 둘째는 미래의 꿈을 꾸고, 셋째는 현재를 살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과거라는 영역의 분명한 고백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서로 작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롬 8:28) '과거에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보따리 안에 담겨진 수많은 삶의 내용들이 경험과 통찰이 되어 미래의 나를 그려봅니다. '미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나의 현실이 되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정직한 수고의 땀들 안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셀레임'입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추억여행은 우리의 오늘을 반복되는 일상의 무기력에서 '셀레임'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히 13:8)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오늘의 셀레임'은 무엇일까요? 아니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나라를 점점 넓혀 나가는 일(마 13)에 꿈을 꾸며, 오늘도 성령이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무기력, 제도적 종교라는 틀을 깨고 나와 다시 한번 역동적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 일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오늘의 셀레임'이 아닐까요? 바로 '신앙의 탄성'입니다. 탄성(彈性, elasticity, 문화어: 튼성)은 힘을 더하면 형태가 바뀌지만, 힘을 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을 말합니다. 영어로 'elasticity', 그리스어로는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욕망이라는 열차로 한껏 부풀어 오른 즉 어느덧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마음먹는 교만이라는 힘이 가해져 기형적 형태로 변한 인생이, 하나님이 아담(=사람)을 향한 처음 2 질문중 1번째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와 주님의 '탕자의 비유'(눅 16)」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 올바른 관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2번째 질문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창 4:9)와 주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를 통해 '나와 세상, 사회, 공동체와의 올바른 관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세상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마 16:24)를 통해 세상과 공동체를 향해 선한 영향력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 '신앙의 탄성'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영성이 살아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오늘의 셀레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감사의 계절인 이 가을에 시계를 거꾸로 돌려 '신앙의 탄성 - 신앙의 초심 자리'와 '오늘의 셀레임'이 회복되는 은총이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pastor.eun@gmail.com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킹덤성경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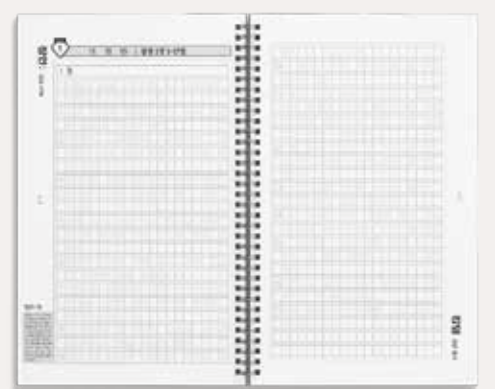
말씀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줍니다. 지친 날들에 은혜를 더해 새 힘을 얻게 하고, 상한 심령을 가만히 안아 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주문안내
개인주문: www.hisfingermall.com
단체주문: info@chpress.net / 718-886-4400



(일반용)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바르고 예쁘게 써주세요.



(청소년용)



영어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한글로 예쁘게 써주세요.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받는 복, 누리는 복

어릴 때 집안 아저씨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다. "이제 밥 먹을 만하게 되었는데 XX가 세상을 떠났다고." 60년대만해도 사람들 대부분이 빈궁한 삶을 살았다. 그

때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로 시골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십리 이상의 먼 길

을 힘들게 머리에 짊어 이고 시장을 갔다. 도중에 쌀장사들이 준비하게 늘어선 팔라고 하지만 단 몇 푼을 더 받으려고 힘든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 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가나, 시장에서 육개장 한 그릇 사서 먹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배고픈 허리를 졸라매고 그 먼 길을 다녀온 후 집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곤 했다. 한 그릇에 얼마 되지 않는 그 맛있는 음식도 돈을 아끼기 위해 사 먹을 수 없었다.

그처럼 구두쇠로 몇십 년을 절약함으로 땅을 조금씩 늘려갔다. 그런 삶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헛소리"고 입맛을 썉썉 다시곤 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나 싶다. 그런 삶을 고집한 분들은 항상 안주처럼 말씀하곤 했다.

"나는 만 원짜리 곰탕 한 그릇을 사 먹지 않았노라고," 곰탕 한 그릇을 사 먹지 않은 그분에게 그 사실은 훈장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삶의 법칙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계율 같은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전 6:2)

그렇다. 저토록 자린고비처럼 절약하고 아껴가며 논밭을 사고 먹고살 만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다.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는 복은 받지 못했기에 뜻밖의 곰탕 한 그릇 사서 먹지 못하는 일생을 살아야 했다.

친척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다. 자린고비 영감도 울고 같은 그런 형님이었다. 그런 태도 때문에 재산은 꽤 모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누려도 될 즈음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토록 힘써 모은 재산이 눈에 밝혀 어떻게 그 먼 길을 홀로 떠났는지 모른다.

훗날 영으로라도 그 형님을 만나게 된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 재산을 두고 떠나야

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누리도록 허락하셨다. 대단한 축복이다. 이 말은 향락을 추구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여유가 될 때,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것도 누리는 복이다.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연약한 이웃을 향해 손을 펼 수 있는 삶, 이런 일도 분명 복된 삶일 수 있다. 진정으로 기쁨과 만족함을 얻게 하는 일이고 삶의 자부심을 품게 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누리는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일이 사람을 진정 행복하게 만든다.

누리게 하는 복, 당신은 받았나요?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김성일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총무)



505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일을 맞아 교회의 존재 의미와 교회로서의 사명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까?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사교의 장소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오십니까? 교회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가 교제하며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47절에 "...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신 대로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넷째로, 교회는 신령한 은사를 행하는 질서의 장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 따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

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

해야 하겠습니까? 연약한 형제가 하심하다가 미혹에 빠졌고 넘어졌고 실수했고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의 죄를 비난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것에게서 벗어나도록 힘써 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주는 행동이 여러분이 교회인지 아니면 그저 율법주의자인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

니. 집을 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율법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남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무겁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배우고, 이는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25절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곧 교회는 언제나 남을 생각합니

다. 집을 지어 합니다."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교회된 우리는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각각 자기 행동을 살피고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 떼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엄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달음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섬기셨고

장 27절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낱알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땅을 씹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샷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낙심치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본문 7-8절에서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여 위선에 빠질 위험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로 10절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섬김에 지치게 되면 그것은 동기를 잃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침의 상태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한없이 끝나지 않고 보상이 없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3장 34-35절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힘써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됩시다.

kacp2you@gmail.com

“교회가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6:1-10



고 하심과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안에서 교회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교회로서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이 죄를 지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교회로서 어떻게

합니다. 본문 2절에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16절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 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라고 하신 것처럼 서로의

다. 빌립보서 2장 3-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함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실천합니다. 본문 3-5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교회된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자기 행동을 언제나 살펴야 하고 남과 비교하여 자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각각 자기의 짐을 충실히 져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들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유익을 나누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로서 교회 사역은 먼저 소망과 사랑의 기도이기도 하지 만 물질로 손발로 섬기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15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마다 종교개혁의 표어를 강조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무엇이며, 개혁은 또 무엇인가? 삼십년도 더 된 오래전 이야기이다. 신앙의 선배 중에,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개혁에 대해 열심히 특정한 분이 계셨다. 그가 어느 날 교회 담벼락에 대자보를 붙였다. 내용인즉, 교회가 재정을 투자신탁 회사에 맡겨 이윤을 보려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거룩한 헌금을 가지고 투기를 할 수 있는가? 주된 내용이였다. 당회가 이를 설명했고 같들하면서 설명에 서로 이해를 하는 듯 했다. 헌금을 가지고 이윤을 보려고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쪽과 어차피 교회가 일반은행에 맡겨도 이자를 받게 되는 간접투자가 아니냐는 설명이였다. 설명을 들어보면, 모두 이해가 되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해는 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당시에는 교회개혁의 좋은 표징으로 삼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목회자의 사례와 세금 문제, 교회운영의 민

적인 주장과 행동을 한다고 할 때, 혹은 때로는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선한의도가 주님의 마음에 열납된다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몇 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의 시대에 참된 교회개혁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출발점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를 위한 복된 관점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한다.

1. 교회를 운명처럼 사랑

이민사회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을 볼 때, 이 교회가 평생 내가 섬길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음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이 사람과 내가 살수도 있고 언제라도 헤어질 수도 있는 관계, 깊이 사랑하지 않고도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는 관계, 그런 관계들은 각자의 인생에 불행하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항상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좋을 수는

되고 좋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를 많이 좋아해야 한다. 교회 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한다. 모든 삶의 중심이 말씀과 성령,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시작이 아닐까?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 언제나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음을 본다.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하면 박수치고,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얼굴이 변한다. 마치 가뭇유다가 예수님앞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믿음을 보고서도 자기 생각으로 어긋난 판단을 하는 것과 같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쓸데없이 예수님께 붓느냐고 말한다. 예수님을 섬겨도 자기가 이해되는 선에서만 따르려고 하는 존재의 모습이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따라가고, 이해되면 따라가므로, 늘 자기의 능력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사람이다. 결국 복 없는 결론을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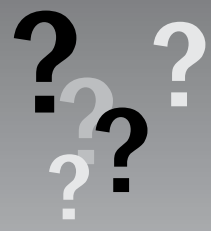
는 주장을 따라 살게 된다. 결국은 어떤 인생이 되는가? 말씀에 정한 법에 순종이 없기에, 예비하신 복 과도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들에게는 방종이 자유와 진리이다.

몽학 선생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복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율법에 대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은혜가 없어도 불구하고 몽학선생을 따라가다가, 이 모든 것이 섭리요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마침내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장남같이 분별없던 감각이 인생이 타인의 손에 끌려서 교회에 왔고, 그때부터 교회를 통해 교회를 배우게 되며, 마침내 다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씩 돌씩 배워간다. 성경공부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모른다. 그러나 일단은 배웠다. 배워두는 것이다. 따라가는 것이다. 누군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젊은 엄마입니다. 바쁘게 미국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쫓기듯이 삽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치 않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인공 유산하기를 원하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 플라센티아에서 문

A: 낙태 문화는 한국과 미국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치며 대립하는 일치를 보기 힘든 윤리적 이슈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매년 60만 명이 태어나지만 낙태로 사라지는 생명이 1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 오렌지카운티에서 목회할 때 주일학교 부부가 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부부가 원치 않게 임신을 하였습니니다. 남편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내는 자기가 직장생활하고 원치 않게 임신이 되었기에 낙태를 하겠다고 주장하며 갈등하다가 결국은 아내가 남편 허락없이 병원에 가서 낙태 수술을 하였습니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니 안하니 큰 싸움이 되었습니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니다. 사람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낙태에 대한 견해는 2가지입니다. 첫째 낙태는 임신한 여성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소위 선택권 우선론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Pro-choice라고 합니다. 둘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생명인 태아는 무조건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권 우선론자 영어로 Pro-life 라고 합니다.

낙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는 태아의 신분(STATUS)을 어떻게 규정하느냐?하는 것입니다. 태아는 아직 단순한 생명체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초기 태아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잠재적인 인간 생명일 뿐 인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낙태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최소한 인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뇌가 조성이 되고 최소한 뇌파가 감지되는 시점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됨의 기준을 자의식(self-consciousness)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게 되면 뇌의 생성 기간인 8주-10주 이전 단계에서는 뇌의 기능이 없으므로 이때의 낙태는 윤리적으로 별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태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모태에 형성된 새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으로 인간으로서 완전한 기능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생명의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시 139편입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1절)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으며”(13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16절)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태어나기 전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에게 동일한 인칭대명사인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은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며 죄이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공유산은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미국은 낙태 천국입니다. 낙태는 태아에 대한 경시현상과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언제나 보호받아야 합니다.

참된 개혁의 사람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이다. 교회가 중요하다. 혹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면 돼지, 왜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필요하냐고 질문한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걸치는 옷이 필요하다. 육신의 몸을 얹힐 의자가 필요하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교회를 잘 따르고 배워야 한다. 그렇게 배우다 보면 되는 것이다. 개혁을 원하는가? 교회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보라.

서 머릿속 상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그것은 귀신놀이 하는 것이지 결코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손으로 잡고 만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 이것이 참된 개혁의 출발점이 된다고 여겨진다. 교회개혁을 원하는가? 먼저 교회개혁을 원하느냐? 먼저 교회를 진심으로 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가 바로 참된 개혁자가 아니겠는가?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종교개혁, 교회사랑, 교회개혁 1

주적 정당성 등을 언급하면서, 잠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여러 측면에서 교회를 앞서 이끌어가는 당회와 젊은 성도들간의 불협화음들이 충돌과 대립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0년이 지난 지금, 교회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당시를 회상해보면, 뜻은 좋았지만, 교회개혁에 대한 조금 더 성숙(?)한 입장을 취하였더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교회의 공공성이 세상 앞에 아름답게 드러나 본이 되며, 모든 성도들에게도 항상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져야 할 주님의 교회가 몸살을 앓듯이 분열하고, 마침내 세상 앞에 부끄러운 치부를 까발리듯이(?) 세상 앞에 드러내어서야, 과연 진정한 개혁, 개혁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혁은 마치 상처의 고름을 짜내는 심정으로 해야 되고, 그런 썩은 고름을 잘라낼 때, 그 지지분함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항변한다.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출발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교회를 개혁하자는 구호에 앞서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충만할 수는 없을가?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참 마음으로 개혁

없겠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은 내 운명이다, 평생 생명 바쳐 사랑할 사람이다.' 그 믿음의 약속을 지켜가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지상 교회가 가지는 작은 허물과 연약함에 결코 교회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운명을 만났는데 인생이 왜 변하지 않겠는가? 교회를 향한 순전한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아무리 좋은 요리를 개 밥그릇에 담으면 결국 사람의 밥이 될 수 없다. 믿음의 아름답고 정한 그릇 위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담아 주신다. 광야인생길에 힘들고 지친 인생을 온전하게 세우는 사막의 샘물이 공급될 것이다. 만나의 광야를 막게 된다.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 교회는 내 운명이다. 이처럼 영화로운 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모든 교회의 개혁과 회복은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2.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

교회에 모이는 것은, 단순히 교회라는 빌딩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모이자는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은 그런 복

이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따름이다.

교회는 결코 인간의 이해 가능한 보편성에 기초하지 않는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기초한 신령한 은혜의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의 보좌 교회앞으로 나아와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워도, 피곤할수록, 힘들수록,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한다. 힘든 일이 생겨서 잠이 오지 않으면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잠이 오지 않거든, 기도하러 교회로 가보라. 걱정과 근심들이 기억도 나지 않음을 만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얻게 될 것이다. 교회를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품으로 믿고 나아오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난다. 나아가기만 해도 주님이 답을 주신다. 이런 신령한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을 때, 교회를 향한 모든 개혁적인 소원과 소망도 짝을 띄울 수 있지 않을까?

3. 교회를 따르는 것이 복

말씀에 기초를 두고 교회가 정한 것도, 자기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난다. 예를 들어 침일조가 율법이고, 주일 성수가 율법이고, 새벽기도도 율법적이어서 동의 못한다는 사람들이다. 결국 이들은 말씀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열심

가 '새벽기도 나오십시오'하면 그렇게 따라 나오고, 그러면 새벽기도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미국식이나? 한국식이나? 따지기 전에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하는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 보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들로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어 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의 말처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따르는 복된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교회를 배우고, 교회를 따르며, 교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혹자는, 은혜 받으면 다 된다고 말하고, 은혜 받기 이전엔 뭘 몰라도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아야 빛나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배우는 기간이 5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언제나 한결같이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면, 언젠가는 폭발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50년 60년 예수를 믿어도 한결같이 잘 배우지 못하니, 은혜를 말하여도 삶은 같지(之)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움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은혜 받으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따르고 배워야 한다. 그렇게 배우다 보면 되는 것이다. 개혁을 원하는가? 교회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보라.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교회의 특성은 사랑이라

미국의 Barna Research 설문 조사를 통해서 그 지표를 적절하게 알려주면서 격려하고 성도들과 사회로부터

도 합니다. 이 지표들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확신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전에 Barna Group에서 설문을 통해 새 신자에 관한 심각한 지표를 내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은 예배당 앞으로 들어오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뒷문으로 나가는 숫자가 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여 한 가족으로 삼는 일에 소홀히 한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적응하신 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걸지 않으면 어색한 장소가 됩니다. 그 누구도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고 알은척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 성도들

의 적극적인 태도가 새 신자가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는 절대적인 기여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얼마나 새로운 성도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성도를 반기고 그들에게 한 가족과 같은 마음을 줄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선교지에서 새로운 성도가 오게 되면 모든 교인들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찾아오는 MBB (Muslim Background Believer)에게는 목숨을 내놓는 개종의 과정을 거쳤기에 더욱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가까운 가족들이나 자신들의 무슬림 움마 공동체와 이별하고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에서 박해나 손해까지 감안하고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슬림 공동체에서 느끼던 가족 같은 분위기를 훨씬 상응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새로 직업도 찾아줘야 하고 살 곳도 마련해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이들을 한 가족으로 맞이 해주지 못한다면 이들은 소외되고 외톨이가 되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아닌 외로움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환영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엔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질병이 아닌 각 지역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가

며 교회들도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새 성도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존의 교인 중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안 하다가 다시 영적으로 힘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다른 때보다 더 어려운 교회의 정착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면서 특히 새 성도들을 환영하고 교회의 구역과 전도회 및 다양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가서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랑이라면 새로운 사람에게 적극적인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 폭스콘 '엑소더스' 열악한 숙소·식사·근무

노동자 집단 탈출이 벌어진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 내부 사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폭스콘 직원들은 지난달 13일부터 공장에서 숙식하며 애플 아이폰을 조립해왔는데 봉쇄 말고는 이렇다할 관리가 없는 허술한 운영과 열악한 환경, 엄격한 작업 규정 때문에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은 1일 폭스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통해 지난 열흘 동안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했다. 이에 따르면 격리 장소는 열악하고 하루 세끼 식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폭스콘 측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명이라는 소문이 가시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핵산 검사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폭스콘은 전 직원에게 숙소와 공장 외 이동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장에 들어가기 전 24시간 내 받은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근무 시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야외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숙소에서만 벗을 수 있도록 했다. 작업 후엔 알코올 75% 소독용 물티슈로 칸막이, 컨베이어 벨트, 테이블 등을 닦아야 한다.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 지난 19일부터는 공장 내 식당도 전부 문을 닫았다. 직원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루 세끼 도시락이 지급됐는데 식사 때마다 공장에서 숙소로 돌아와야 하는 데 대한 불편함이 컸다고 한다.

불만이 터진 건 지난 29일이다. 이날 오후부터 중국 온라인에는 '집단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폭스콘 직원들이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영상 등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폭스콘 관계자는 제일재경에 "걸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폭스콘은 직원들의 원성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전염병은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다 집단 탈출 영상 등이 중국 SNS에 퍼지며 비판이 일자 내부 공지를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온라인 문진도 실시하고 온라인몰에서 의약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국과 협의해 귀가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차량 등을 지원하고 정상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저우 공장은 애플 아이폰의 최대 생산 기지다. 블룸버그 통신은 "폭스콘은 공장이 계속 풀 가동될 수 있도록 핵심 파트 노동자들의 시급을 아이폰14 생산이 시작된 지난달보다 36% 올린 약 389만(7400원)까지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또 "정저우 공장의 어떠한 혼란도 정교하게 조직된 애플의 공급망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며 "수천개의 부품이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정저우로 보내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조립된 뒤 이후 세계 다른 곳으로 출하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휘발유 가격 인상에 따른 경제세 들릴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유 기업들에 이른바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속에 천문학적 이익만 누리고 가격을 낮추기 위한 투자는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고통만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휘발유 가격 상승 등으로 촉발된 비난 여론을 되돌리려는 승부수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석유 기업들이 주유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주요 석유 기업들이 유가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길 거부하면서도 기록적인 이익만 내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업계의 이익 규모는 터무니없다. 기업의 이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의 횡재(windfall)"라며 "전쟁 중에 기록적인 횡재를 얻는 기업은 경영진과 주주의 사리사욕을 넘어 행동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가 인하를 위해 이익을 추가 생산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고, 기타 제한 사항에 직면하도록 하는 요구를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요 석유 기업의 수익은 올해 매우 증가했다. 엑손 모빌은 3분기에 지난해 동기보다 3배 많은 197억 달러 영업수익을 올렸다. 셰브론(112억 달러), 셸(94억5000만 달러) 등도 같은 기간 큰 수익을 기록했다.

횡재세 조치는 입법 사안으로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공화당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현실화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런데도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은 중간선거 여론전을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의 책임을 기업들에 돌리고, 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공화당이 막고 있다는 주장을 퍼려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기 보다는 석유 회사에 대한 압박에 가까웠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선거를 노리고 휘발유 가격에 대한 분노에서 멀어지기를 바랐다"고 평가했다. AP통신도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를 며칠 앞두고 고유가에 맞서 싸우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휘발유 가격이 최고치를 찍은 지난 6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까지 내려갔고, 이후 전라비축유 반출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자 다시 회복세를 기록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은 3.7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5달러 이상 이던 지난 6월보다 내려간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독립석유사업자협회(IPAA)는 "바이든 대통령은 비난 게임을 중단하고 대신 미국에서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석유·가스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미국의 에너지를 공격했다"며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

법은 공화당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 보수 대법관들 "...인종 배려는 차별"

미국 연방대법원이 흑인, 히스패닉 등을 배려하는 대학 입학제도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한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대법원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대법관들은 심리에서 소수 인종 배려 정책이 다른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 규정 폐지 가능성을 높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31일(현지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소수인종 배려입학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연이어 심리했다. SFA는 주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을 대변하고 있다.

이날 대학 측은 인종이 여러 평가 요소 중 하나의 요소이며 대학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장치라는 주장을 폈다. 인종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구학적으로 다양한 분포의 학생을 확보할 수 없어 관점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FA 측 캐머런 노리스 변호사는 "(대학은) 의도한 수혜자들에게 낙인을 찍는다"며 "인종 의식을 키워 진정한 인종 중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날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바꿀 수 없는 것(인종)을 바탕으로 사람을 다르게 대해 분개를 일으킨다"며 "지금 대학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인종 실험의 희생자가 되게 하려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수 대법관들도 해당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대학 입학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과소 대표된 소수자에게만 '플러스'를 주면 다른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록에 따르면 아시아계가 지원자가 다른 그룹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흑인인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도 "나는 인종이 다양한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교육적 이점이 무엇인가"고 캐물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은 "피부색만 보고 점수를 주는 것이 관점의 다양성을 가져온다면 그것이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흑인이라면 자원이 부족한 학교에 다니고, 자격이 부족한 교사에게 배울 가능성이 크고, 학문적 잠재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미국의 다원주의를 신뢰한다는 건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영한다는 것"이라고 제도를 옹호했다.

미국 내 여론도 제도에 부정적인 편이다. WP가 최근 조지 메이슨대 공공행정대학원 '샤르스쿨'과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3%는 소수인종 배려입학 금지에 찬성했다.

이날 대법원 인근에선 인종 배려 정책에 대한 찬반 집회가 각각 열리며 미국 사회 분열도 드러났다. 찬성 측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협회(NAACP) 회원 등은 "다양성을 수호하라"고 주장했고, 반대 측인 유령계 미국인 법률방어 및 교육기금(EALDEF) 회원 등은 "인종차별을 끝내라"고 맞섰다.

미국 언론은 대법원 결정이 내년 6월까지 미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보수적 대법관들이 인종 배려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제도 존치가 어려울 것

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보수적 다수파는 수십 년에 걸친 판례를 재고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첫 3선 대통령 탄생

중남미 '좌파 대부'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76) 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했다. 12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룰라는 브라질 첫 3선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썼다. 그의 승리로 중남미에 불붙은 '핑크 타이드'(좌파 물결)가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의 룰라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결선 투표에서 50.90%를 득표해 49.10%를 얻은 사회자유당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67) 대통령에게 1.8% 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1989년 직선제가 브라질 대선에 도입된 이후 가장 작은 차이이다. 지난 2월 치러진 1차 투표에서는 룰라 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으나 과반 득표에 실패해 이날 결선 투표를 치렀다.

룰라는 대선 승리 확정 후 상파울루에서 연설을 통해 "브라질은 2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위대한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된 나라와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서 사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이 좌·우파 간 극단적인 이념 대결로 전개된 것을 의식해 통합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빈민가 소작농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구두닦이와 땅콩 행상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2002년 대선에서 승리했고, 재선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구속됐다. 지난해 유죄 판결이 무효가 되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한 뒤 이번 대선에서 승리했다.

룰라의 승리로 2000년대에 이어 제2의 핑크 타이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콜롬비아 모두 좌파를 선택해 중남미 곳곳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특히 브라질은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협의회를 계기로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룰라의 당선은 미·중 대결 구도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룰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이 나오더라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주장했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며 "그의 외교 정책은 서구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는 즉각 축하 메시지를 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협력을 지속하고 함께 일하게 될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트위터로 축하를 전하면서 "두 나라는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릭스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 인도도 축하 인사를 전했다.

룰라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무분별한 삼림 파괴로 훼손된 아마존을 되살려야 하고 무엇보다 분열된 브라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룰라는 공공부문 개혁, 여성 안전, 경제 성장 등을 약속했다.

당면한 관건은 1.8% 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느냐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브라질 사회는 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그는 대선 패배 후 어떤 입장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대선 패배로 면책 특권을 잃게 돼 공금 횡령,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대한 수사도 받게 됐다.

V. 신론 (5)

D. 하나님의 사역 (the Works of God)

2. 예정 (predestination):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정 교리를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인간의 공로인가? 중에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는 신앙고백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행 13:48)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때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누가 믿었는가?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다.

그리고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롬 9:10-12,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하려 하시"

엡 1:4-6,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셨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예정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곧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다.

3. 창조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한다.

1)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1) 무에서 창조 하셨다 (Creation Out of Nothing).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외

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했음을 의미한다.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의미한다.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한다.

(2) 하나님의 창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와 같은 영적 세계도 포

다. 진화론은 기독교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한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창조론은 하나의 허구적인 조직체계이다. 진화론의 전제는 모든 존재는 우연히 존재했다는 가정이다.

진화론 가운데 소진화 (micro-evolution) 와 대진화(macro-evolution)가 있다.

소진화는 동일한 종족(one species)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발전이다. 소진화는 사람의 피부 색깔이 조금 변화한다든지, 혹은 키가 커진다든지, 꽃들의 색깔이 조금 변화한다

창조하셨다.

오늘날 진화론이 우리 인간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파괴적이다. 인간이 우연히 저절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생겼다면 인간의 도덕적인 결과는 인간이 책임 질 필요가 없게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매우 난폭하며, 악한 행동을 범하게 되면, 그들의 대답은 단순히 그 사람은 아직 진화가 덜 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자기의 죄와 악한 행위를 스스로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덜 된 진화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적응력이 강한 생명들만 생존하게 되고 연약한 존재들은 자연도

는 직접적인 창조이며 그리고 목적과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나 진화론의 기본 사상은 "우연" (randomness)이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창조하셨다. 진화론은 새로운 종 (種, a new species)이 발생하기 까지 목적없이 수백만의 돌연변이를 강조합으로 전적으로 무작위(mutations) to proceed entirely randomly) 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창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유신론적 진화론의 근본적인 차이는 새로운 종의 변화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이다. (randomness) 이들은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고등생명체로 발전하는 할 수 있는 것의 기본적인 사상은 우연과 돌연변이이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때에 하나님의 지적인 계획(God's intelligent design)에 의하여 창조시에 각 종류대로 즉각적으로 (immediately) 만드셨다. 유신론적 진화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생물을 만드시니라, 그 과정에서 수천만 번의 진화와 돌연변이의 과정을 거쳐서 살아 움직이는 쥐가 되었다." 이것이 유신론적 진화론의 주장이다. 그들은 수백만년의 돌연변이를 거쳐 생식 능력이 강한 생물체들에 의해 점점 복잡하고 고등 동물들로 발달되었다고 주장한다.

(2)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만드셨다고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 긴 시간의 진화의 과정의 결과가 아니다.

(3)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그 종류 안에서 차이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각기 종류 안에 차이가 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키, 개인의 성격, 피부 색깔 등 유전적인 변이를 통해서 변화가 있다. 꽃들도 여러가지 색깔과 모양 등, 유전자 변이를 통해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는 제한과 한계가 있다.

(4) 아담과 하와의 특별한 창조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때부터 고도로 발달된 언어능력, 도덕적, 영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증거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로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원인 (nonhuman apelike creatures)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이 원인으로부터 많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고등인간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었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10)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함된다.

(3)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창조하셨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 특히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인간의 귀중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4)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는 시간도 포함된다. 창조 이전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다스리시며,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창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의미는 시간의 연속의 개념의 영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적인 영원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신다.

(5)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

(6)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사 43:7; 시 19:1-2; 계 4:11)

(7)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좋았다. (창 1:4, 10, 12, 18, 21, 25, 31)

(8)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beauty)이 외적으로 나타난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2)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주만물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에서 찾는다.

마치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믿는 다. 진화론이 그들에게는 종교와 같

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창조론은 이러한 소진화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진화론을 가리키는 것은 대진화이다. 대진화는 비생명체가 생명체로 변화되는 것, 생명이 없는 비유기적인 물체가 생명이 있는 유기체로 바뀌는 것 등을 말한다.

그러나 진화론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처음에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가? 문제이다. 비유기적인 물질이 (inorganic materials) 우발적으로 (by chance) 유기적인 생명체가 생길 수는 없다.

필립 존슨은 Darwin on Trial (InterVarsity Press) 책에서 이렇게 비유한다. "비생명체에서 생명체로 변화한다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을 휩쓸고 간 태풍으로 쓰레기 통에 있는 재료들이 우연한 조합으로 저절로 보잉 747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과 같다. 우연한 조합 (chance assembly) 은 기적을 말하는 자연주의적인 방법 (naturalistic way) 이다."

수십억년이 지나도 하나의 생명체는 세포 (even one living cell) 가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생명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을 창조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실험한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들은 복잡하고 정교하며 생명력이있는 하나님의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다.

생명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태 (natural selection) 할 수 밖에 없다는 진화론적인 이론을 기초로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방치함으로, 좀 더 강하고 고등한 인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정도 정당화 시킨다. 마르크스, 니체, 그리고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이다.

그리고 인류가 지속적으로 더 나은 단계를 향하여 진화되고 있다면 (evolving for the better), 이전 시대의 지혜와 진리는 모두 현대의 지혜보다 가치가 없게 된다. 진화론의 이론에 의하면 성경의 진리와 지혜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은 현대인들보다 진화가 덜 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단순히 고등동물의 형태 (human beings as simply higher forms of animals) 로 보는 현대의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론들은 모두 진화론적인 이론의 산물이며, 이 속에는 인간의 귀중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유신론적 진화론 (Theistic Evolution)

유신론적 진화론은 생명이 있는 유기체는 모두 진화의 과정을 통해 생겨났다는 진화론의 주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도하셨다고 한다. 이 이론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진화론도 믿는다는 이론이다. 이들은 진화론의 이론이 바뀔때마다 그들의 이론도 변화된다. 그들의 사상의 중심은 진화론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양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뉴욕양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 오전 5:30 (월-토)</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백기도: 오전 5:40 (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찬양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세 백 기도: 오전 5:45 전교인특별세백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9:15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찬양예배 오후 3시20분 세백기도: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 오전 6:00 (월-토)</p>	<p>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세백기도: (월-토) 오전 6:00</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6:00</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div style="text-align: center;">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div>					
<p>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학교: 주일 12:00</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기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오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예배: 오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토)</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삼일예배: 오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45</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40</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토)</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법선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0)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9) 방법9-1: 죄 앞에서 스스로에게 평안하다고 말하지 말라

(3)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분별하는 몇 가지 규칙

* 규칙4. 자신의 신념과 원리에 근거해서 스스로에게 평화를 선언한다면 그것은 거짓 평화이다. 그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죄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는 그 죄 때문에 마음에 가책을 느낀다. 복음에 합당하게 울바로 살지 않았다는 자책 때문이다. 그때 그는 빛 속에서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들만

은 단순히 죄의식과 깨달음의 원리에서 행동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천성적인 능력을 함양시킬 수는 있지만 결코 그에게는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 첫번째 질문: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할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 첫째, 당신이 여전히 거짓된 평화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당신에게 신속

삶을 바로잡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평강의 말씀을 들은 영혼은 더 이상 완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소유하게 된다. 또한 그 의지만큼 그의 영혼은 감미로움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 규칙5. 교만한 양심에 찾아오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다.

양심에게 스스로 평강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함을 갖지 못한다. 하나님의 평강은 다윗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며 낮아지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비밀스런 본능이다. 동정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배속에서 아이가 뛰었던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실 때 그것을 알고 뛰게 된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항상 명심하라. 즉,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분은 결코 사람의 방식대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당신의 마음은 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약임을 알고 그는 그 약속들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상태에 적용하고 평화를 얻는다. 그러나 이것은 공허한 신기를 좇는 행위이다. 이것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지적이고 이성적인 영혼의 단순한 활동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이성을 가진 자연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 진실로 거듭난 성도들도 있다. 중생한 사람은 두 유형의 모습을 모두 공유한다. 그 결과 그는 때때로 이성적 원리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영적 삶은 감정의 원리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앞에서 말한 사람

한 깨우침을 주실 것이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다.”(시 25:9)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를 계속 좌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둘째, 이런 사람이 스스로에게 평화를 말할 때 그는 보통 기다리지 않고 말한다. 하지만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는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자녀들이 돌아올 때 잠시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다.

다) 셋째,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양심, 생각, 이성 그리고 영혼을 안정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진정한 안식과 은혜의 만족으로 소생되지 못한다.

라) 넷째, 더욱이 스스로 평안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소서”(시 51:1). 그러나 스스로 평강을 외치는 사람은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취했던 그런 깊은 겸손함을 결코 보여주지 못한다.

* 두 번째 질문: 우리의 상처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위안을 삼으려고 할 때 그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평강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다. 그 말씀은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임하기에 영혼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실 때를

에서 뜨거움을 느끼게 된다. 주님은 자신의 손을 문틈으로 내미는 것처럼 말씀하신다.(아 5:4)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당신을 사로잡기 위해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신다.

항상 자신의 감각을 훈련시키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방식,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효과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판단력과 경험을 쌓아가는 사람은 확실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잘 분별한다.

나) 둘째, 또한 주님은 자신의 말씀이 시기적으로 당신의 영혼에게 유익함이 된다고 판단될 때 말씀하신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이 겸손해질 수 있고, 정결해지며, 순종과 함께 자신을 비울 수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younsklee@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다시 성경으로

지난 17년 간 남편의 목회를 도우며 꾸준히 해 온 사역이 귀납적 성경 공부이다. 우리 교단인 CRC에서 시작한 커피브레이크가 그것으로, 이것을 처음 교회에 적용하며 한 그룹으로 시작하는 것이 지금은 이십여 개의 소그룹으로 발전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공부 방식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경 공부는 강의로 진행되는 반면 이것은 질문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에 학습자들의 참여도가 높고 그만큼 만족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성경을 절마다 문맥마다 꼼꼼히 탐색하며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하여 성경 공부의 궁극적 목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한다.

이전에는 야고보서를 탐색했는데 소그룹마다 간증이 넘친다. 직설 화법인 야고보 사도의 서신은 일말의 여지도 없이 학습자들에게 준엄한 책망으로 교훈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하도록 인도했다. 야고보 사도의 종교가 너무 아파 잠을 못 이루었다는 분,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분,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꿰뚫으며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분 등 다양한 분의 풍성한 간증이 넘치고 있다. 그중에서 한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몇 개월 동안 어릴 적부터 앓아오던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던 자매는 야고보서를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는 극심한 발진과 두드러기가 온몸을 덮어 죽을 듯한 가려움증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다. 이 상황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고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야고보서 공부를 시작했다. 소그룹과 성경공부하던 첫날, 묵상 중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이 자매를 찾아오시며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자매와 동일시하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임했다. 영육으로 지친 자매는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של러야 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자매는 고난은 시련이거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주권을 인정하며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다짐했다. 자신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며 치유가 없어도 은혜였다고 고백했다. 수습하기 힘든 절망 중인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묵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한 자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다.

지난 10월 31일은 종교개혁기념일이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당시 오만하고 부패한 교회의 실상에 개혁을 부르짖으며 항거한 날을 기념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러졌던 것이 ‘오직 성경’이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시대의 가치를 답습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 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 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쉬운 성경, 디모데 후서 3:16-17)

yanghur@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6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7: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 주(목) 오후 4:00-7:00</p> <p>Tel: (772) 802-1112, estross@yahoo.com 605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다민족: 오전 10:00 영 아 예 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p>	<p>보스톤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아 예 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새생명안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벽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화 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알칸사 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9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델리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Green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945-0288, Fax: (215) 942-9037 706 Wilmer Rd, Horseshoe,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24(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정호</p> <p>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e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겉사람과 속사람

자주 오가는 길에 큰 공장 같은 건물이 하나 있다. 그냥 공장 아니면 창고인 줄로만 알았다. 하루는 소풍물에 꼭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켜서 찾아갔는데, 찾아가니 그

공장 같은 건물이었다. 그리고 그 공장 같은 건물 안은 얼마 아파하게 화려했다. 여러동절하며서 소풍물에 마치고 나 오면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소풍물은 내부가 중요하지, 겉모

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건물의 겉모습을 보기 위해서 소풍물을 가는 것은 아니니까.

소풍물이 내부가 겉모습보다 중요하다면, 나는 내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을 가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본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광고들은 온통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기 위한 것이다. 피부가 10년은 젊어 보이게 만든다는 화장품, 다리가 길어 보이게 만든다는 옷, 머리 술이 많아 보이게 만드는 헤어스타일처럼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굳이 더 고가의 브랜드의 옷을 입고, 굳이 더 비싼 메이커의 자동차를 타는 것도 대부분 우리의 겉모습이 멋져 보이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면 온통 좋은 모습, 멋진 모습만 보인다. 좋은 겉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겉모습보다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 보다 겉모습에 더 많이 투자하곤 한다. 내면을 가꾸는 것이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면은 아무리 가꾸어도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면을 가꿨다고 하여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내면을 가꾸고 투자한 것이 겉으로 바로바로 보여진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투자할 것 같다.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내면을 가꾸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이 하루 종일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바쁘게 살아가는 때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우리의 내면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잘

돌보지 않은 부부관계로 인하여 팬데믹 기간 동안 이혼율이 20%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고, 팬데믹 기간 동안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이 30%가 넘었다는 보고도 있다. 그만큼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 나의 속사람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왔다는 뜻이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고 기도한다. 여기에서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도 가리킨다. 바울 사도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의 하나에 해당할 만큼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가꿀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지름길은 없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의 내면은 성형수술 같은 단

시간적인 방법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저 매일 매일 경건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매일 매일 꾸준한 말씀기도, 곧 어떻게 보면 말쑥한 것 같은 반복적인 경건의 습관을 들이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에 나의 내면을 비추어, 나의 본 모습을 대면하는 방법 밖에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 질문해보는 것 말이다. 이런 일들은 어렵고, 해도 잘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wmclakim@gmail.com

플러워마운드교회 안수집사 은퇴, 임명 및 안수식 가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삶의 가치 있어"

플러워마운드교회(담임 김경도 목사)가 지난 21일 주일 예배에서 김요한·조쉬 김(Josh Kim)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과 김윤택 안수집사의 은퇴식, 강봉길·문두형·정태현 집사의 안수집사 임명식 및 안수식을 가졌다. 전교인 통합예배를 드린 이날 예배에서 김경도 목사는 '주께서 쓰시는 사람(딤후 2:15)'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감독에게 쓰임 받지 못하면 소용없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삶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바 됐을 때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이날 안수자와 임직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길 축복했다. 1999년 1월 24일 설립된 플러워마운드교회는 이날 예배에서 설립 이래 처음으로 안수집사의 은퇴식을 가졌다. 김경도 목사는 2008년부터 14년간 안수집사로 헌신하고 사역 안수집사로 계속해서 헌신을 약속한 김윤택 집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은퇴식에 이어 진행된 안수식은 안수집사 시취보고와 안



플러워마운드교회 안수집사 은퇴, 임명 및 안수식에서 김경도 담임목사가 안수받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수례 및 공포, 목사 시취보고와 안수례 및 공포, 김만조 선교사의 권면 및 축사, 안수패 증정 등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특히 이날 목사 안수를 받은 김요한 목사(플러워마운드교회에서 어린이부 담당)는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고등학교

때 주님께 헌신한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목사 안수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과 같다고 생각한다. 더 겸손한 목사, 교회와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실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목회자를 향한 폭력...

(3면에서 계속)

5. "목회자를 향한 폭력"은 목회자가 피해자인지 혹은 방관자인지 기준에 따라 정의할 의지도 없이 선불리 고발할 때 발생하는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두 개의 범정, 즉 교회 처리와 민사 범정을 만들어주셨다. 정당한 절차 없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목회자를 학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당한 절차가 있더라도, 특정한 형태의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법정에서 목사를 공격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 성도들은 법원도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재판 결과나 장

로 위원회의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상급 법원에 의뢰하면 된다. 이것은 장로교의 아름다운 원리 중 하나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진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헬름하는 것을 더더 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인 목회자들을 꾸짖는 것도 더더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만큼, 특히 복음의 봉사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자.

새 책 소개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세 딸을 하버드 대학에 합격 시킨 엄마의 고백을 담은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가 출간 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생각이 막아 하는 하버드대학교 합격소식을 세 번이나 안게 된 저자 심활경 사모는 "그동안 곳곳에서 비결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지극히 평범한, 특별한 구석이 없고는 하나도 없는 나' 라고 스스로를 낮추며 딸을 아꼈지만 수많은 질문에 일일이 속 시원히 답을 할 수 없어 질문들에 답변을 하듯 결국 이 책을 출간했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남편의 늦깎이 유학으로 이민을 왔다. 동양인 이민자였기에 사회적으로는 비주류였고, 목회자 가정이었기에 경

심활경 사모

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았다. 당연 임시 컨설팅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나 일반 공립학교를 다니 세 딸을 모두 하버드대학에 보냈다.

심활경 사모는 "세 자매는 최선을 다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한 결과 탄탄한 실력을 쌓았고,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인생 스토리를 완성하도록 끊임없이 격

려했으며 사랑으로 보듬고 베푸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종의 용광로'라는 미국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으며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하는 것이 전부 아님을 강조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에필로그를 통해 "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사명을 발견했다"며 "그 사명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발견하도록 돕고, 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픈 간절한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본서는 Part 1 '아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Part 2 '아이 인생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라', Part 3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미래를 바꾼다', Part 4 '가능성과 잠재력을 배가시켜라', Part 5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끄는 리더로 키워라', Part 6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열다'로 구분해 '발견하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 '관측하는 사람', '아이의 신호에 일일이, 정성껏 반응하라' 등 34



개의 글로 구성했다. 본서에 관한 문의는 (323) 735-7374(LA 세종문고)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in California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실비지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핀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코너스톤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동부교계 게시판

친구교회, "친구가 또 교회가자" 초청 잔치

친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는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오전 11시에 네 번째 친구 초청 잔치를 연다. 1부 예배, 2부 친구 찬양제, 3부 만찬 및 선물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소: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문의: 친구교회 718-760-5346

뉴욕십자가교회 유초등부 사역자 청빙

뉴욕십자가교회(담임 문신인 목사)에서 성실하고 열정있는 유초등부 사역자 (part time)를 청빙 한다. 주요사역은 주일 유초등부 예배 인도(오후 12:30-1:30)와 VBS 진행 및 교회행사 협조이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Resume)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교회웹사이트: thecrosschurch.org

▲문의 및 접수: 917-410-1157, moontcpc@gmail.com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미동부 동문회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미동부 동문회(회장 박성원 목사)를 개신교수도원수도회(회장 김에스터 목사)에서 11월 7일(월) 오전 11시에 가진다.

▲문의: 동문회장 박성원 목사 718-683-8884

"아미제양상블" 이웃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비영리단체로서 매년 정기공연 및 자선 음악회, 양로원방문 등을 통해 음악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이웃과 나누고 있는 아미제양상블(단장 한윤미)은 12월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뉴욕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아미제양상블"을 개최한다.

▲문의 및 후원: 아미제양상블 917-533-0706, amusezensemble@gmail.com

KIDZ BIBLE ADVENTURE 시즌7

KIDZ BIBLE ADVENTURE 시즌7은 2022년 11월 7일 부터 12월 19일까지(11월 21일, Thanksgiving Week 휴강) 매주 월요일 미주동부시간 7:30-8:50 PM 6주간 진행된다. 대상은 1학년 부터 6학년까지이며 1시간은 전체프로그램으로 20분은 Small Group 시간으로 영어로 (Zoom)을 통해 진행된다.

▲문의: 낫은올타리 미주본부 646-300-4790, Wooltarius.org

2022 청교도 신앙회복 영상 부흥회

제3차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한 영상 부흥회가 '부흥을 통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2022년 11월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김우준 목사(토렌스 조은교회), 허연행 목사(뉴욕 프라미스교회), 손정훈 목사(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이성철 목사(달라스 연합장로교회), 이은상 목사(달라스 세미한교회), 호성기 목사(필라 안디옥교회), 박신웅 목사(얼바인 온누리교회), 강민수 목사(시카고 레익 뷰언교회), 김준근 교수(JAMA), 강순영 목사(JAMA) 강사를 초청해 영상을 통해 개최한다.

▲문의: 강순영 준비위원장 310-995-3936

제18회 밀알 추수감사절 디너

뉴저지 밀알 선교단(단장 강원호 목사) 11월 26일 오후 6시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이재서 총장을 초청해 Double Tree Hotel (NJ)에서 개최한다.

▲문의: 201-530-0355

아틀란타밴델교회 7주년 감사예배

스와니 소재 아틀란타밴델교회(담임 목사 이해진)는 11월 6일(주일) 오전 11시에 창립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후 5시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가진다. 주소: 2870 Lawrenceville-Suwanee Rd Suite J, Suwanee, GA 30024

▲문의: 678-765-8909



총회 후 참석자들이 함께 단체촬영을 했다

뉴욕교협 48회 정기총회, 회장 선출되지 못해 부회장 이기웅 목사 선출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 48회 정기총회가 10월 27일(목) 오전 10시에 하크네시아 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렸다. 총회 회의에 앞서 부회장 이준성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기도 박마이를 목사(미스바회개운동위원장), 성경봉독 이준범 장로(평신도부회장), 박희소 목사(중경회장)의 설교, 헌금기도 전광성 목사(부활절준비위원장), 김원기 목사(중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 본 총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선거가 진행됐고, 회장 후보로 이준성 목사가 단독 출마했으나 결과적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함과

동시에 불법선거 및 재석 관련 논란 중 후보 이준성 목사의 사퇴 의사 발표로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다. 부회장 후보로는 이기웅 목사(뉴욕성결교회)가 당선됐다. 신임 회원 교회로 피어선예동교회(김홍배 목사)와 샬롬교회(양미림 목사)가 이날 뉴욕교협에 신규 가입했다. 그 외 김일태 이사장(뉴욕 한인성교회)을 평신도 부회장으로 추대했으며 감사 김재룡 목사(세계제국인선교회), 평신도 부회장 이준범 장로(뉴욕 우리교회)를 선출했고, 나머지 한 명은 임원회에 선출을 위임했다.

(김재상 기자)



임직 예배 후 안근준 목사와 임직자 및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가졌다

뉴욕마하나임선교회 은퇴 및 임직예배, 안근준 목사 안수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로 달려가라"

뉴욕마하나임선교회(담임 박준수 목사) 은퇴 및 임직예배가 10월 30일(주일) 오후 4시 본교회 소속 미남침례회 뉴욕 한인 지방회 주관으로 드려졌다.

1부 예배는 인도 박준수 목사, 기도 안승백 목사(뉴욕은유교회), 찬양 교회 찬양대, 설교 한필상 목사(뉴욕안디옥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목사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사도행전 20:24, 6:3-7)"을 주제로 설교했다. 한목사는 "거룩한 목회자"를 강조하고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목회자가 되라"고 했으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짜이다. 목회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로 달려가라"고 부탁했다. 또 임직자들에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십자가 신앙"을 강조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는 자세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면

류관을 받는 자가 되라"고 부탁했다. 2부 은퇴식에서는 최태영 안수집사가 은퇴했으며, 박준수 목사는 은퇴하는 최 안수집사를 소개하고 기도한 뒤 공로패를 증정했다. 최태영 안수집사는 1989년에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고 33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다. 3부 목사안수식이 진행됐다. 지방회장 한필상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안수식에서 시취보고를 했으며, 박준수 목사가 안근준 안수자를 소개했으며 안수기도, 약수례, 공포, 성의작용, 목사 안수패 증정이 있었다.

4부에는 백창건 목사와 장길준 목사의 권면과 박진하 목사와 김재용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교회에서 준비한 마련한 기념꽃 증정, 교회학교 일동의 축가가 있었다. 이날 안근준 목사와 배은철 안수집사가 감사한 뒤, 안근준 목사의 축도와신은철 목사의 만찬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퀸즈장로교회, 온 가족 초청 Fall Family Festival 개최

할로윈 데이를 온가족이 교회에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10월 31일(월) 오후 5시 30분부터 "The Ark of Salvation"이라는 주제로 Fall Family Festival을 개최했다.

교회 밖에서는 할로윈 데이 저녁인 이날, 본 교회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과 온 가족을 초청해 함께 저녁식사, 팝콘, 솜사탕, 캔디와 페이스 페인팅, 풍선, 머리핀, 목걸이 만들기,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바운서와 그 외 다양한 게임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 앞서 퀸즈장로교회는 주말에 노방전도를 통해 많은 이웃에게 초청장을 나눠줬으며 성도들 역시 한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다민족들

을 모두 초청하여 교회 안에서 온 가족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저녁 7시부터는 예배를 위해 교회 본당으로 장소를 이동해 퀸즈장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신나는 찬양과 바디워십, 성극 순서를 진행했고, 김성은 목사(중등부 담당)가 "The Ark of Salvation (창세기 6:17-22)"을 주제로 설교해 모든 참석자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성국 담임 목사의 축하 메시지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던 래플 상상을 통해 준비한 다양한 선물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김재상 기자)



퀸즈장로교회에서 Fall Family Festival이 진행되고 있다



뉴욕교회찬양대가 연합 찬양을 드리고 있다

뉴욕교회, 창립 45주년 감사예배 및 니카라과 선교 후원 찬양제 "그 이름을 찬양", 니카라과 이체선 선교사 지원

뉴욕교회(담임 김성기 목사)는 10월 30일(주일) 오후 4시, "그 이름을 찬양"을 주제로 창립 45주년 감사예배 및 니카라과 선교 후원을 위한 찬양제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코람데오 찬양팀의 찬양, 최종승 장로(선교사역국장)의 기도, 김성기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담임 김성기 목사는 "그 이름을 찬양(디모데전서 3:15)"을 주제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뉴욕교회 는 믿음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교회이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뉴욕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45주년 창립 예배 가운데서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어떻게 나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지 바라보고 계시기

에 오늘 준비한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의 모든 찬양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줄로 믿는다."라고 전했다. 2부 찬양제에서는 김시온 자매의 피아노 솔로, 소철화 사모의 소프라노 솔로, 도원찬 형제의 클라리넷 솔로, 뉴욕유스오케스트라(지도 박미연 집사)의 연주와 이단비, 오재혁 집사의 오보에, 바이올린 합주, 여운지 자매의 소프라노 솔로, 소마트리오의 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 합주로 진행됐다. 이어 니카라과 선교를 위한 특별헌금 순서를 가진 뒤 남성중창, 여성합창 후 뉴욕교회 연합 찬양대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 이름을 찬양"을 합창으로 찬양 한 뒤 김성기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김재상 기자)



45주년 창립 예배 및 임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받는 순서도 가졌다. 김태원 집사, 이태준 학생, 이다원 학생, 이정희 집사의 특별 연주, 그리고 효신교회 양군식 강도사의 축하 특송이 진행됐다. 임직자 일동은 뉴욕연회 한인교회들이 임직식 할 때 읽는 율리암 바클레이의 기도문을 두 함께 읽으며 "주님께서 세워 주신 이 자리는 남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종의 자리임을 알게 하사 자량이나 교만을 떨리고 언제나 겸손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각 오를 다졌다. 모든 순서는 선교 목사인 이취실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그레이트네교회 4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

장로 1명, 권사 6인, 명예권사 2명, 집사 2명, 전도사 1명 임직

뉴욕그레이트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는 창립 45주년을 기념하여 10월 23일(주일) 오전 10시 45분에 창립 45주년 기념 감사 예배, 오후 5시에는 임직예배를 드렸다. 임직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양민석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김종일 목사(뉴욕성서교회)가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마태복음 5:1-9)"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임직식을 통해 시무장로 최성, 시무권사 6명(김진한, 김두영, 이서우, 백경희, 황임주, 이순연), 명예권사 2명(김희재, 이동인), 시무집사 2명(이관진, 송경화), 김경숙 전도사를 임직했다. 집사 임직식은 이요섭 목사(퀸즈

중양교회)의 집례로 진행됐다. 권사 임직식은 김정호 목사(후리성제교회)의 집례로 진행됐으며 장로 임직식은 UMC 뉴욕연회 한인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양민석 담임목사가 집례를 했다. 김연식 목사(뉴욕벨교회)는 장로로 임직을 받은 최성 장로가 부인과 어머니 최정혜 장로와 함께 서서 권면을 듣게 하고 "교회에서 최고로 겸손한 장로, 온유한 장로, 잘 섬기는 장로가 되라. 최 장로를 통해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교회에 큰 복이 되는 장로가 되라"고 부탁했다. 그동안 지휘자로 섬겨왔던 김경숙 지휘자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임직

피종진 목사 11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사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ik(Th.D)

010-5255-7777
God Bless 3377@gmail.com

제 227차 해외성회 (227th Overseas Assembly)

1(화) 인천공항 KE703 09:55분 출발 - 일본 나라타 12:20분 도착
1(화) 일본 (JAPAN) 동경 나라타 총회신학교 (학장 정스대만 목사)
2(수) 일본 (JAPAN) 동경 나라타 갈멜산힐링센터 중국인특별성회 (원장 김태실 선교사 (90) 6535-9118)
3(목) 일본 (JAPAN) 동경 우에노공원 노숙인 목요정기기도집회 (준비위원장 김태실 선교사 및 일본선교회)
4(금) 일본 (JAPAN) 동경 나라타 사랑의교회 (Rev Stepan Jung)
5(토) 일본 나라타공항 KE 704 14:00 출발 - 인천공항 (5토) 16:50도착

7(월) 저녁 서울 위대한 약속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8(화) 오전 한국기독교회관 노혜미부흥사회 (대표회장 김희희 목사) 010-7522-0236
9(수)~10(목) 저녁 시흥 사랑의빛교회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10(목) 오전 (제이제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사단체 총연합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실무총재 한영훈 목사 대표회장 김우경 목사 010-8898-9141)
11(목) 오후 서울행복한교회(윤창규목사) 대화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12(토) 오전 안산 성암교회 (이준식 목사) 010-4939-0675
13(일) 오후 진안 임마누엘 범천수양관 (원장 이공순 목사) 010-8623-6391
14(월)~16(수) 부록 박복주 목사 010-4132-1191

17(목) 서울 해병대 시령부교회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 010-2568-9006
18(금) 안양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 010-3710-5608
21(월) 저녁 충주미스바중양교회 (문동철 목사 서순만 목사) 010-7136-7669
22(화) 오전 대부도 엘림 수양관(원장) 김우경 목사 010-8898-9141
22(화) 오후 서울대학교 ABKI 총동문회 문화행사 장소 서호미술관
23(수) 오후 오산리 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회 Good TV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오영대 목사 총괄 부부장 김희희 목사) 010-7291-0291
28(월) 오후 서울신학교학장(김종환목사)월드기독교총연합회(최영희목사)제3차주비기도회 및 복지위원회 발대식(대표고은 피종진목사 대표총재 정도출목사, 이사장 정진희목사)010-7567-8291
28(월)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원 목사) 010-7220-0733
29(화) 오후 익산 글로벌센터 (원장 강은숙 목사) 010-3670-899930
(수) 오후 성남 은송교회 (노규애 목사) 010-3765-0658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유수연 거주 67지구 하원후보가 연설하고 있다

유수연 거주67지구 후보 차세대 살리기 후원의밤

“이번 선거를 통해 악한 교육과 정책을 막을 수 있게 되길”

유수연 거주67지구 후보 차세대 살리기 후원의 밤이 11월 29일(토) 오후4시 부에나팍에 위치한 오병근 장로의 집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유수연 후보는 “지난 금요일부터 선거방향이 역전으로 가고 있다. 불가능한 선거였는데 지지도가 뒤집혀지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1주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 지지를 호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LGBTQ와 CRT 등의 영향으로 우리는 20대와 30대를 잃어버렸다. 따라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하원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독주로 캘리포니아의 모든 정책이 세워지고 시행되고 있다. 그중 LGBTQ와 CRT이론을 적극 지지하는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은 많은 피해를 받고있다”며 “그 중 성전환수술 이슈가 있다. 18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 원래의 성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환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평생 육체적인 고통을 하며 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후보는 “현재 세크라멘토에서 악법을 만드는 자들은 게이와 양성애자”라며 “그들이 만든 법안으로 인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라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차정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남미계 주민들은 가족을 사랑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가 남미계 이민자들과 함께 한다면

무너져가는 캘리포니아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유성국 목사(유 후보 남편)는 “성경에는 한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한사람이 나라를 지킨다. 요셉 한사람으로 인해 에스터 한사람으로 인해 백성모두가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찾는 그 한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지난 9년 동안 ABC통합교육국에서 캘리포니아가 타락된 길로 가게 되고 우리 아이들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성전환하게 만드는 사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악한 교육과 정책을 막을 수 있게 되고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주예수의 위대한 이름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연 아나운서(미주복음방송) 사회로 열린 1부 순서는 오병근 장로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가 대표기도했다. 이어 프레드 위태이커(OC 공화당의장), 팀 로벨리(LA카운티 공화당의장)가 축사했다. 이어 스프라노 유민예, 바리톤 김정호가 특송했으며 색소폰리스트 에릭김이 색소폰 연주를 바이올리스트 배주희, 허연선, 첼리스트 김원선의 실내악 3중주 연주가 있었다. 2부순서는 유수연 후보의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 소개되었으며 유수연 후보가 인사말씀을 전했고 유성국 목사가 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새생명비전교회 송희진 목사 안수 감사예배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두 기둥으로 세워져야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송희진 목사 안수 감사예배가 열렸다. 송희진 목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주신 사랑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선한 종이 되겠다”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주님 말씀을 연구하고 순행하는 학자이다. 말씀을 드러내는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둘째 기도에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기 바란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게 되며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영적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며 “기도를 통해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초심을 갖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생명비전교회 송희진 목사 안수 감사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샌디에고한빛교회 가을부흥회에서 김용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샌디에고한빛교회 가을부흥회

“모든 일의 시작은 중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침!”

샌디에고한빛교회(담임 이병희 목사) 가을부흥회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개최됐다. 23일(주일) 오전 11시 임제성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엘로힘 찬양대가 찬양했으며 김용훈 목사가 ‘끝이 아름다운 인생(히 3: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용훈 목사는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비슷하다. 좋은 출발이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쳤는가 이다. 아무리 출발을 잘해도 끝이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이라면 잘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출발을 잘했지 후회로 마친 인생의 고백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모든 일의 시작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침이다. 하나님은 우리인생이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답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쓰임 받은 삶의 공통점은 시작은 초라하고 어렵지만 끝은 아름다운 마침이라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살면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말했다. 그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능력을 부여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데 목회자로 받쳐주고 붙잡아주는 기둥이 말씀과 기도”라며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가 되기 바란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순행하는 학자이다. 말씀을 드러내는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둘째 기도에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기 바란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게 되며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영적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며 “기도를 통해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초심을 갖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안수예식을 통해 강준민 목사의 목사안수 선포가 있었다. 이어 자넷 옥교수(풀러신학교)가 축사했으며 이영주 사모가 축하 찬양을 불렀다. 이날 예배는 송희진 목사가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축도로 마쳤다. 송희진 목사는 아주사 퍼시픽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취득했으며 지난 10월21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ECA 목사안수식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현재 새생명비전교회에서 봉사부와 중보기도 사역팀을 담당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3차 청교도신앙 회복을 위한 영상 부흥회

청교도신앙회복운동(대표 한기홍 목사, 강순영 목사)가 주최하는 제3차 청교도신앙회복을 위한 영상 부흥회가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유튜브로 열린다.

▲ 문의: (310)995-3936

장학기금 마련 바자회 개최

세계선교교회(담임목사 김창섭)에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한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3년만에 열리는 이번 바자회는 오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2시까지 세계선교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되며 갈비구이, 단감, 육포를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들과 옷, 생활용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세계선교교회는 힘든 시기에, 많은 이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보람이 있는 바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바자회에 모여진 수익금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특별히 다음 세대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 문의: (213)388-1927

최병철 교수 초청 성경적 음악치유사역 세미나

성경의 음악과 음악치료의 저자 최병철 교수 초청 ‘성경적 음악 치유사역 세미나’가 오는 11월 22일(화) 저녁 7시부터 플러턴에 있는 세인폴 루터란 교회에서 열린다. 오렌지카운티 교협과 목사회 등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 강사 최병철 교수는 ‘성경의 음악과 음악치료’의 저자이며 현재 숙명여대 명예교수로 있다.

▲ 문의: (913)283-3173

캠코랄 갈라콘서트

캠코랄(지휘 이수정 집사) 갈라콘서트가 6일(주일) 오후 7시 애나하임개혁교회(Rev. Joel Van Soelen)에서 열린다.

▲ 문의: (714)828-3083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남가주 연목회 연합 추수감사예배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회장 고계홍)와 남가주 연세동문 목회자회(이하 연목회 회장 이영선 목사)에서는 2022 연세 추수감사예배를 오는 11월 6일(주일) 오후 4시에 부에나팍교회(담임 김성남 목사)에서 드린다. 이번 감사예배에는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원로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 문의: (714)486-7282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제3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제3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아픔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를 지난 11월 24일(월) 로스코요 테컨트리클럽에서 가졌다. 이번 골프대회는 참가선수 약 150여명, 벙커 참가자 약 180여명이 모여 해외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다. 신용 회장은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 많은 고마운 분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센터매디컬그룹, 유종배 사장님과 황선철 회장님, 제임스 윌드와이드 이종열 장로님, 많은 물품으로 참석자들에게 기쁨을 준 CJ Foods USA를 비롯해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후원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고 말했다. 윤우경 이사장은 “오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적으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선교사님들 세계에 우리 연합회의 장학금 소식 이 점점 알려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저녁 만난 벙커에서 말씀을 전한 CBMC 지도목사 안신기 목사는 “선교사를 돕는 거룩한 일에 동참한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전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개회식에서 OC교협 심상은 목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고 말하고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아픔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강조했다. 저녁 만찬에는 11월 선거에 출마한 영김, 미셸스틸 박, 유수연, 박영선 등 후보와 보좌관들이 참석해 축하와 이번 선거의 중요성 및 한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골프대회를 준비하며 그동안 1, 2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민길 총괄준비위원장과 대회장, 부대회장에 감사패를, 연합회 이사 전홍장로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2019년 1회 때 15명, 2021년 2회 때 52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올해도 5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 전달식은 12월 중에 가질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장로성가단 제27회 정기연주회에서 사모함정단과 함께 헌성으로 찬양하고 있다

남가주장로성가단 제27회 정기연주회

“3년만에 열린 연주회, 오직 주님께 찬양과 영광”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김병완 장로, 지휘 장진영) 제27회 정기연주회가 10월30일(주일) 오후 6시 파사데나장로교회에서 열렸다. 김병완 단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정기연주회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오늘 연주회는 특별히 청중들에게도 친숙한 곡으로 선포했다. 연주회를 통해 즐거운 시간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완 단장 환영인사와 피세원 목사(오렌지한인교회 담임) 말씀과 기도도 시작된 연주회는 남가

주장로성가단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등 찬송가, ‘은혜’, ‘내게로 오라’, ‘쿵마야’, ‘He Touched Me’, ‘Oh, Happy Day’ 등 찬양곡을 불렀다. 또한 남가주장로성가단 사모함정단과 함께 헌성으로 ‘문들어 머리 들라’와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불렀으며 남가주장로중창팀이 ‘내 영혼 평안해’와 ‘예수 이름 높이 세’를 불렀다. 이날 특별순서로 스프라노 김주혜와 트럼펫 연주자 안석영 씨가 찬조 출연해 이날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박준호 기자〉



한교총 '이태원 참사' 애도... "지금은 함께 울어야 할 때"

류영모 총회장 "한국교회, 회개하고 다음세대 품어야 해"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을 위한 교계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회장단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표회장인 류영모 목사를 비롯해 고명진 김기남 공동대표 회장, 신평식 사무총장은 희생

자들을 애도했다.

류영모 목사는 조문을 마치고 "다음세대 죽음 앞에 한국교회가 온 맘으로 애도합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류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할 때"라며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좋은 문화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인 큰 슬픔 앞에 한국교회가 온 마음으로 애도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류 목사는 다음세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드러냈다. 그는 "성경에도 재난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함께 울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음세대를 가슴으로 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교총은 참사가 벌어진 직후인 지난 30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5일 광화문과 시청광장에서 예정된 '코리아퍼레이드'를 잠정 연기했다. 한국 종교계도 마음을 모았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도 이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이홍성 목사)가 소속돼있다. 합동분향소는 이른 오전부터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심포지엄 "정부 지원 종료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교회·단체 연대해 정착 세심하게 도와야

지난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한국교회 역할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합동지원단은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장악한 뒤 우리 정부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특별기여자들이 국내에 입국한 뒤 1년간 이들의 국내정착 지

원을 수행했고 31일부로 운영을 끝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 모임인 '우리모두친구' 손문준 대표인은 이날 "맞춤형 취업정착 지원, 자녀들의 대학 진학과 학력 및 자격 인정, 가족 결합 등 남은 과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기여자들이 교회와 단체가 연대하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모두친구가 최근 개최한 '제1회 다문화 포용 정착 심포지엄(사진)에서도 향후 한국교회의 역할이 강조됐다. 앞서 정부합동지원단이 구성한 실무협의체 소속 민간단체 13곳 가운데 사마리아인스코리아, 더멋진세상, 우리모두친구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등은 기독교 관련 단체다.

경기도 남양주 운누리M센터의 아프간 사역팀장인 고기원 선교사는 "정부가 큰 그림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역 교회와 기독교 단체 등 민간이 세밀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 초 울산 지역교회들이 결성한 '다사모'를 이끄는 예동렬 우정교회 목사는 "(울산에 정착한) 아프간 사람만이 아닌 '다문화 사역'을 위한 모임'이 되도록 다사모라 했다"면서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교회가 소외된 이웃, 나그네를 돕는 데 거룩한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딩 지저스 콘퍼런스 2022', 그리스도 중심 성경 통독...

성경 읽기에 도움' 세미나 현장, 스토리 친근하게 느껴져

'3500명'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만든 성경 통독 프로그램인 '리딩 지저스'를 활용해 성경을 읽고 있는 서울 중현교회(한규삼 목사)와 대구동신교회(문대원 목사) 교인들의 수다.

분당우리교회(이찬수 목사)가 한국에 처음 소개한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은 45주 동안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교재다. 책의 내용을 담은 일러스트 동영상이 매일 제공되면서 통독을 돕는 게 큰 특징이다. 목회자는 성경 통독의 진도에 맞춘 설교를 통해 교인을 양육한다. '성경 읽기' '성경 수업' '성경 나눔'으로 구성된 교재의 교육과정은 소그룹 통독이 가능하도록 인도한다.

중현교회와 웨스트민스터신학교는 31일 서울 강남구 중현교회 본당에서 '리딩 지저스 콘퍼런스 2022'를 열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소개하고

했다. 이어 "국가적인 큰 슬픔 앞에 한국교회가 온 맘으로 애도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류 목사는 "다음세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드러냈다. 그는 "성경에도 재난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함께 울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음세대를 가슴으로 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경 통독의 열매를 나누는 사례를 공유했다.

첫 강사로 나선 피터 릴백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총장은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은 성경 전문가를 양성하고 성경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건강한 세계교회를 세우는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리딩 지저스로 통독에 도전하는 교인들의 반응도 눈길을 끌었다. "설교와 성경통독의 진도가 같아 성경 스토리가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매일 제공되는 각종 자료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니 이해가 잘된다" "소그룹이 함께 통독하면서 완독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와 같은 소감이 이어졌다.

한규삼 목사는 "말씀의 가치가 희석되는 시대에 말씀의 권위와 능력, 역동성을 체험할 수 있는 성경통독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이후 구속사에 기초한 견고한 신학의 바탕 위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진리 생수를 마시는 성경통독 운동이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 내 성·가정 폭력 여성 피해자가 목소리 내도록"

기독교여성상담소장 채수지 목사

기독교여성상담소(소장 채수지 목사)는 성폭력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시대인 1998년 한국여성학자협의회가 설립한 단체다. 교회 내 성폭력은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각종 지원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최근 서울 노원구 한 카페에서 만난 채수지 소장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모두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게 만들며 회복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권위주의에 물든 교회와 가정이 여성 성도와 아내를 통제하는 문화가 문제다. 구성원이 가학적·피해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탈피하고 건강한 민주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독교여성상담소에 접수된 신고는 85건으로 그중 절반에

가까운 42건이 성폭력 관련 신고였다. 채 소장은 "코로나19로 교회 예배와 모임이 줄어들었는데도 교회 내 성폭력은 크게 줄지 않았다. 목사의 개인적인 시간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감시하는 눈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목회자가 성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피해자는 이 관계가 권력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적 착취를 당한다. 피해자는 이를 사랑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가해자는 여러 상대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성 중독자인 경우가 많다. 기독교가 유독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 종교적인 사랑과 성적인 사랑을 교묘하게 교란하는 '영적

학대'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체계화된 조치가 없어 처벌까지 이르기 힘든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사법적 처벌보다는 목사 면직을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가 어린이 청소년이 많은 교회에서 다시 설교하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면직도 쉽지 않은 데다 가해자가 다시 교회로 복귀해 목회하기도 합니다. 거기엔 가해자를 적극 옹호하는 공모자와 방관하는 이들, 즉 '종교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상담소에는 성폭력 신고 외에 가정폭력 신고도 많이 들어온다. 놀라운 점은 피해자들이 이혼이나 가해자 처벌에 대해 상담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할 수 없어 힘들다' '내 신앙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을 한다는 점이다. 채 소장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순종이 이런 상황에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용서에 여성이 억압되다 보면 자기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성 스스로도 세뇌된 가부장적 마인드나 성별 고정관념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권위적 문화를 탈피해 여성이 마음속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민주적 절차가 통용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000로 성경 읽는다... 요즘엔 이게 대세라고?

목사·연예인·기독교 유튜버, 직접 성경 읽어줘

최근 유튜브에서는 성경 읽어주는 콘텐츠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기독교 유튜버를 비롯해 목사, 연예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녹음한 콘텐츠의 인기가 급부상해 이목을 끈다.

실제로 유튜브에 '성경통독'을 검색하면 '오디오 성경통독' 영상과 '성경통독 하는 법' 영상 비율이 약 50%를 차지한다. 조정민(베이직 교회) 목사는 유튜브 채널 '더 메시지 랩'을 통해 오디오 성경 콘텐츠를 제공한다.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도 올해 유기성 목사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합성한 성경통독 콘텐츠를 제작했다. 성경 한 권을 녹음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술의 힘을 빌린 것이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성경 읽어주는 콘텐츠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기독교 유튜버를 비롯해 목사, 연예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녹음한 콘텐츠의 인기가 급부상해 이목을 끈다.

기독교 유튜버들의 콘텐츠도 호응을 얻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은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성경통독 채널이다. 2년전부터 신·구약 성경 66권을 권별로 녹음한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유명 연예인과 아나운서도 성경 읽어주기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돌 겸 배우인 최시원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에서 성경읽기'라는 제목으로 성경 66권을 1년 6개월에 걸쳐 완독했다. 배우 신애라는 '신애라이프 오디오성경'을 운영하고 있다. 댓글에는 긍정적 반응이 대

다수다. 영상 댓글에서 한 구독자는 "(성경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고백한다. 또 다른 구독자는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온다"면서 "벌써 세 번째 (성경) 통독을 마쳤다.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것 같다"는 반응도 내놨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 기간 교회의 돌봄 부재로 성도들이 직접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는 1일 "(기존에는) 교회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교인들이 직접 콘텐츠를 찾아 나서는 추세"라며 "코로나19로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가 생겨나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독교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지나친 미디어 노출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문화선교연구원 임주는 연구원은 "아직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 속단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바쁜 사회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영 어:	_____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 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 __월 __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mission 선교의 창 (205)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할로윈(Halloween) 문화와 기독교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밤 10:15. 한국에 또 대형 참사가 터졌다. 11/1일, 현재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1명, 도합 307명이다. 이번에도 사상자 대부분은 10, 20대였다. 사건인즉,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 골목에서 "할로윈(Halloween)" 축제를 즐기려던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고 한다. 현장을 목격한 A씨는 "가파른 골목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들이 밀려서 도미노처럼 쓰러졌다고 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阿鼻叫喚)이었다. 8년 전 세월호 사건의 아픔이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할로윈 데이는 매년 10월 31일이다. 이 문화는 죄성이 깊어 자극적이며 독버섯처럼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할로윈에 대한 이해를 하며 그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악한 문화는 파급력이 빠르며 인간을 포획하기 때문이다.

1. 할로윈의 어원

"hallow"란 영어의 고어(古語)로 성인(聖人, saint)을 뜻한다. 11월 1일은 가톨릭에서 만성절(萬聖節, 모든 성인 대축일, All Hallows' Day, All Saints' Day)로 지켜진다. 하루 전날인 10월 31일 밤은 모든 성인 대축일 전야제이다. 이날은 "All Hallows' Even(ing)"으로서 줄여서 Halloween으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할로윈은 켈트족의

주술적 의미가 담긴 날로서 가톨릭의 모든 성인들 중에서 축일(祝日)이 따로 없는 성인들을 기리는 날과 그 의미가 혼합된 셈이다.

2. 할로윈의 유래

"할로윈에 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체로 주전 5000년대 태양신을 섬기던 아일랜드 켈트족들의 사탄 숭배 제사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그들은 1년을 겨울과 여름으로만 나누었다. 신년은 11월 1일이었고, 그 전날 밤은 그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에 저들은 그믐날 밤에는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가 약해

져서 죽은 영혼들이 지상으로 돌아온다고 믿었다. 켈트족들은 귀신들에게 육신을 뺏기지 않기 위해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등으로 변장을 했다. 나아가 악령들을 달래기 위해 타운 입구마다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고 달콤한 캔디와 음식들을 진열했고 제물들을 불살랐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귀신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음식을 달라고 요구했다. 직접 귀신의 흉내를 낸 것이다.

3. 할로윈 문화의 확산

로마가 켈트족을 정복한 후 기독교가 널리 퍼졌다. BC7세기에 교황 보니파체 4세가 11월 1일을 모든 성자들의 날(All Hallow Day)로 정하면서 켈트

들은 폐쇄된 삶의 현장 속에서 3년간이나 지냈다. 이런 와중에 2022년 10월29일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가 열린 것이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무튼 한국에는 할로윈 문화가 들어온지 20여년 밖에 안되었는데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놀랄 일이다.

4. 할로윈 문화의 특징

10월이 되면 상가와 길거리가 점차 할로윈 장식으로 변한다. 도시 곳곳에서는 무덤이나 해골, 귀신들을 상징하는 모양 등 온갖 괴기스러운 분위기로 장식을 한 집들이 많이 있다. 공공기관에도 할로윈을 위한 축제 포스터가 가득하다. 아마 은행이나 우체국, 병원 등의 직원들은 할로윈 분장하고 일하곤

해 준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에 이교도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뒤섞여서 생긴 것이기에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게 한다. 아이들이 귀신 의상을 입고, 귀신 놀이를 하는 것은 영적, 심리적, 교육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한 날인데, 이날 이교적인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모순(矛盾)이다. "성경은 '약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딤후 5:22)고 했다. 기독교계의 저명한 변증학자인 Bob Passantin은 "오늘날 미국에서의 할로윈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거부했기에 사탄이 교회에 침투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영적 세계의 실존을 가르치지 않았고 성도의 거룩을 강조하지 않았으

면에는 순전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어둠의 세계로 이끌어 가지 않나 싶다. 그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형식(Form)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이는 교단이나 국가 차원에서 강제성을 띤 결정이어야 한다. 둘째 형식(Form)을 인정하되 내용(Contact)을 복음으로 대체한다.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함께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셋째 할로윈을 대적하는 추수의 밤 (Harvest Night)이나 기타 다른 명칭으로 더 신난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는 것이다.

맺음 말

할로윈 데이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됐다. 사람들이 시도하는 귀신이나 유령 또는 섬뜩한 분장들의 가장(假裝, costume)문화는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이 문화는 표면적으로 재미있고 순진한 모습을 띠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악령이나 사탄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자아의식이 있는 청소년들은 분별력이 있어 하나의 놀이 문화로 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백지장과 같은 어린 심령들은 그 마음에 할로윈이 강하게 새겨질 것이다. 이제 할로윈 문화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과정이야 어쨌든 지금의 할로윈은 하나의 축제처럼 유희와 유희의 장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시중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후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말이 있다. 독성이 강한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시작은 호기심과 놀이(Fun)로 출발하지만 역사가 흐른 후에는 어둠의 문화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귀신의 달, 음력 7월을 무시워하는 대만인들을 보라.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할로윈 데이에 대한 연합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jsong007@hanmail.net

악한 문화는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강하며 파급력이 크다. 할로윈 문화는 비성경적이며 어린 영혼들에게 해(害)를 끼친다. 교회는 "거룩"만을 외치지 말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개발해야 한다.

한다. 많은 학교들이 10/31일에는 아이들에게 자유분방한 의상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날 저녁에는 저들이 악마, 괴물, 마녀 등 뭔가 사악해 보이는 존재들로 분장을 하고 이 집 저 집 지나며 "Trick or Treat!!" 라고 외친다. 그러면 동네의 각 집에서는 사탕 등을 준다. 미국에서 1년간 팔리는 사탕의 4분의 1이 할로윈 때 소비된다고 한다.

5. 할로윈에 대한 두 시각

할로윈 데이는 지루한 세상에서 재미를 주며 이웃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

6. 할로윈 문화에 대한 대책

성경에 우상 숭배에 대한 단어가 180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구절이 77번, 귀신과 관련된 성경구절이 103번, 사탄에 관한 성경구절이 49번 나온다. 따라서 할로윈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며 다른 신을 인정하고 귀신을 섬기는 행위이다. 이는 이교적 문화로서 삼일주의와 세속화의 탈을 쓰고 있다. 이로써 흥미를 유발하는 저 문화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원 스토리 23강 / 레위인, 나실인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민 1-12장) (2)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합니다.(민 5:1-4) 그들이 말미암아 진영을 더럽힐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민 5:3) 누구든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거역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요 15:1-10),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인 성도들의 삶(고전 3:16,17, 6:19)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고전 6:20)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와 함께 드리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은 그 구별된 삶의 특

질인 구별의 표는 머리에 있습니다. 나실인의 머리는 대제사장이 쓴 관이나(출 29:6,7) 관유가 부어진 제사장의 머리(레 21:10-12)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긴 상태에서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구별된 자들입니다.(민 6:21) 이 나실인의 계보는 삼손(삿 13:2-5)과 사무엘(삼상 1:5,19,20)을 지나 세례 요한(눅 1:5-25, 57-66)과 예수 그리스도(눅 1:26-35,

복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민 6:22-27)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달려가실 것입니다.

감독된 자들의 헌물

성경은 성막이 완성되고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드린 헌물

의 '경결 의식'을 포함해서 레위인들의 '직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민 8:5-26) 그리고 12 정탐꾼의 사건은 지도자로 말미암은 실패인 것이고 포로 귀한 시대에 지도자들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스 9:2) 신약으로 가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행 6:3/ 딤후 3:1-13/ 딤후 1:5-9) 지도자들이 무엇을 드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대표성'인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

유월절은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매해마다 정한 기일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데 모든 백성이 참여해야 합니다. 만일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어도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민 9:1-10) 오히려 경결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담당하여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도 유월절 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니다.(민 9:11-14)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름 기둥이 낮의 해를 막아주고 불

기둥이 밤에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정도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 기둥 안에 불기둥이 들어 있어(출 40:38) 둘은 동시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출 33:7-11/ 민 12:5, 16:42/ 신 31:15/ 참 고. 출 16:10, 19:9, 34:5/ 레 16:2). 단지 낮에는 구름이 보이고 밤에는 불이 보였습니다.(민 9:15,16) 두 기둥의 가장 큰 역할은 '인도'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러야 했습니다.(민 9:17-23)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말합니다.

나팔을 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팔들을 두들겨 만들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게 하여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민 10:1-8) 또한 대적을 치러 갈 때에도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민 10:9) 그리고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물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민 10:10)

hfamilya@gmail.com

우리를 위해 열심을 품고 달려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열심을 내는 우리

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아야만 합니다.(민 5:5-10) 심지어 아내의 탈선이 의심스러우면 제사장에게 가고 제사장이 법대로 처리하여(민 5:11-31) 여인이 탈선을 하였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שת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민 5:21) 여인이 탈선한 일이 없으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 5:28)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징을 '나실인의 삶'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민 6:1-21)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 뿐 아니라 포도주로 된 초도, 독주로 된 초도 안되고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되고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 포도씨와 껍질도 먹어서는 안됩니다.(민 6:3,4) 그리고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하고 시체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가까이 해서는 안됩니다.(민 6:5-8)

2:1-7)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도 바로 구별된 백성으로(출 33:16/ 레 11:44, 20:24,26)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됩시다 (삼상 4:1~11) (찬 342장)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지만 전쟁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삼만 명이 전사하였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홉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

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부적'이나 '주술적 상징'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사용하려는 '종교적 시도'는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됩시다.

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삼상 4:12~22) 찬 446장

전쟁에서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해산할 날이 가까워져 오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갑자기 산통이 와서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됩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수 이방 땅에서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왕권 (삼상 5:1~12) 찬 67장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돗 지방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그 어느날 다곤이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져서 몸통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드지방에 옮겼는데도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언약궤는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죽

음의 재앙을 내리셨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다곤 신전의 무너짐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목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삼상 6:1~21) 찬 455장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지 일곱 달이 지났습니다. 벤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로 인하여 두려웠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덮고 있는 언약궤의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의 이름은 '시은좌' 혹은 '시은 소'라고 합니다. 율법을 은혜가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라는 덮개를 열고, '율법'이라는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

는 과정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벤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열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복술자들이 암소 두 마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테스트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양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 핵심 장소 (삼상 7:3~14) 찬 382장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 온 후 20년을 그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치고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회개부흥회를 엽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핵심 장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무엘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무기를 들고 전쟁을 걸어올 때, 사무엘은 오히려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인생의 핵심 장소입니다.

토 누가 진짜 왕인가? (삼상 8:1~7) 찬 140장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상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소리칩니다. (삼상 8:8~22)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에 복을 나누주는 '제사장 나라'(출

19:6)를 꿈꾸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를 동경합니다. 너무나 슬픈 비극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왕은 세상의 가치로 채워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분야(재정, 시간, 재능, 가정, 자녀, 기업 등)의 주인으로 인정합시다.

기독교교육 (15)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

기독교교육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네 번째는 교회음악입니다. 음악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음악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동요, TV 쇼나 영화의 배경, 라디오, 학교 콘서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현악 연주에서도 음악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플라톤은 음악에 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은 절대적인 원리이다. 음악은 우주에 영혼을 불어넣고, 마음에 날개를 달아주며, 모든 것에 생명을 더해준다."

랫동안 복음전파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데 효과적이며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의 시선도 사로잡습니다. 특히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 기본 소식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을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 헨트(T. W. Hunt)는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원의 음악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음악의 중요성을 네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문화의 표현. 문화는 인간의 경험과 감정의 표현으로서 언어, 시, 풍습, 음악 등으로 표현됩니다. 그와 같은 표현들 중에서 음악은 가장 중요하고 개성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억을 돕는 역할. 음악은 사람들이 단어나 개념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호의 가치 소유. 음악은 기억이 떠오르게 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빠르게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넷째, 의사소통의 방법. 음악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문화에서도 음악은 여성들로 하여금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음악은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자신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로의 음악에 대한 이해는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음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음악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15:1-21)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낙성 후 유대인들이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욥기 38:7은 새벽별들이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골로새서 3:16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새노래를 부른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의 삶에 있어 음악이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음악은 회중이 공유하고 동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전문가들의 공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회중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회중 찬양은 교회에 속한 모두에게 감동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중들은 찬양을 통해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연합과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기독교 역사 전반에 걸쳐 신앙생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음악은 예배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악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찬송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줍니다. 노래를 통해 성도들은 신앙고백, 기쁨, 감사, 찬양, 찬미, 기도, 선포, 헌신, 승리, 소망 등을 표현합니다.

음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올바른 음악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음악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 음악은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이끌 수 있습니다. 교회음악은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이어야 합니다. 어떤 복음성가들은 하나님을 기뻐이 노래하는데, 그것은 크리스천의 신앙 성장에 위협합니다. 교회음악은 신학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가사가 성경적으로 정확해야 하고 반주는 가사의 전달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음악은 교회의 연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선곡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선호와 필요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음악은 음악적으로도 탁월해야 합니다. 최고의 음악이 아니라도 최선을 다하는 음악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음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도와야 합니다.

음악은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노래는 진리를 전달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서 신자들의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성과 감성을 동시에 움직여 진리를 오래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노래로 표현된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오래 남기 때문에 신학적인 개념이나 교리를 가르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렇듯 교회음악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엡 3:10)를 알리고자 하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될 구성요소입니다. 음악 사역은 오늘날의 문화에 있어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을 다룹니다. 신학적인 개념과 문학적 표현과 예술적인 재능과 음악적인 기호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음악 사역의 역할은 모든 교인들에게 음악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교인들이 음악을 통해 전도와 봉사의 일을 하도록 돕고, 교회에 속한 사역기관들에게 음악적인 훈련과 자료를 공급하며, 교회와 교단의 일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훌륭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노래를 통한 전도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노래는 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뉴저지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뉴저지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동아시아 X국

▲ 종족명
T족

▲ 인구
약 150만 명

▲ 종족의 종교
라마 불교

▲ 종족의 교회 상황
현지인 목사님 한 분이 비밀스럽게 사역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한쪽 가정 교회, 현지인 교회 거의 전무

▲ 모델 되신 분에 대한 특이사항
길에서 만난 T족 여인이다.

▲ 기도제목

1. 창세기, 사도행전 번역

점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2. 각 마을 센터 사역자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활발히 복음이 전해지도록
3. 성경 번역 사역자들의 이동과 결혼으로 생기는 변화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4. 성민이와 은상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군 생활을 하도록
5. 현지의 귀임을 위한 비자 과정이 순조로이 진행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신교 필리핀

1. 선교지로 돌아옴
한국에 안식년으로 가 있는 3개월 동안 다행히 전기가 살아 있었고 수도물도 나오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보통 2개월 이상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지 않으면 곧바로 끊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는 우기라 집에 오니 풀과 녀름들이 대문을 뒤덮고 있었고, 뒷마당에는 뱀이 나올 정도로 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서 청소하는데 여러 날 걸렸습니다.

2. 새 학기가 시작됨
학부형들은 수업료를 깎아 달라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 학교는 운영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 감사한 일입니다. 필리핀에서 많은 사립학교가 경영난에 휘청거리다 폐교를 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서, 모두 좋은 성적과 모범이 되고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새 희망 학교 이 미지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웃 학교에서도 여러 명의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심스런 상황인지라 시기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토요일은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약기와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광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외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 급식과 나눠 줌
8월에 한국의 김목사님께서 20만원을 헌금해 주셨는데, 그 헌금으로 9월 중순에 학교에서 급식을 하였습니다. 학생들 163명과 교직원 10명, 그리고 음식을 요리한 학부모들이 함께 먹었는데 우기철에는 굶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안식년으로 한국 방문 때 여러 교회에서 보내 준 물품이 선교지에 무사히 잘 도착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4.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며칠 전에는 폭우가 많이 내려, 필리핀의 남부 민다나오 섬에 사망자가 73명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근처의 바닷가에는 여러 집이 물에 잠겨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저녁 6시에 전기가 나갔고, 밤마다 물이 새서 그릇을 받쳐 놓았습니다. 곧 있어 집 주변에 물이 많이 차올라 보면서 정화

조가 넘쳐 집 안의 거실로 물이 역류하였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공 선교사와 제가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닦으며, 화장실 안의 물을 대야에 퍼담아 바깥으로 가져다 버렸습니다. 몇 시간째 물을 옮겨도, 옮겨도 줄어들지 않아 마당에 나가 비닐에 흙을 퍼담아 하수도 입구에 올려놓아 막았더니 그제야 물길을 잡을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니 다시 계속해서 물이 올라와서 이번엔 큰 화분을 비닐에 담아 올려 놓으니 그제야 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
1. 학교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2. 집을 잘 수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3. 토요일에 시작하게 되는 한국어 교실과 약기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4.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주일 예배를 학교에서 드리고 있어 조심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주님의 때에 학생들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5. 선교지에서 사역 할 때 늘 영육 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오정윤/공윤자 선교사 ohgongtak@hanmail.net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62. 건강한 결혼생활의 특징들

결혼생활이 건강하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본질과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데이빗 필드(David Field)는 <Marriage Personalities>에서 건강한 결혼생활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거기에 응답하는 능력은 건강한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하며, 배우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화해의 능력이란 의견의 일치보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 운동하거나 여행을 하며, 유머를 통해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친밀감이다.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한 친밀감이란, 감사의 애정 표현, 신체적 접촉, 서로를 위하여 마음 속 깊은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또 친밀감이란, 성적 즐거움을 포함합니다. 부부관계에

의견의 일치보다 서로의 존중이 더 중요 진정한 헌신은 자신의 인격에 의해 결정

부부들은 함께 있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자석과도 같이 서로를 각자의 자력장으로 끌어당깁니다.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그런 시간 계획을 세우는 부부들은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함을 누립니다.

(2) 영적 생활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부부들의 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부부들은 건강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의 영속성과 동반자관계,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한 부부관계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부부들의 영적 생활을 보호해 주며, 그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3) 화해의 능력이다.

(4) 성숙이다.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부부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야 합니다. 성숙의 정도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아중심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비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합니다. 성숙함이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1) 충절(Loyalty)을 의미합니다. (2) 상처를 입어도 계속 인내함을 의미합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놀이와 유머이다.

성숙한 사람은 놀이와 유머를 즐길 줄 압니다. 고통과 좌절이 올 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웃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웃음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현상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함

있어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서로의 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7) 헌신이다.

헌신은 건강한 결혼생활의 모토인 돌의 역할을 합니다. 헌신이 없는 결혼 관계는 매우 연약하여 별거와 이혼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헌신이란 헌신이 필요합니다. 결혼 관계에서 헌신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이므로 주어진 상황을 초월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배우자의 자격보다도 자신의 인격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건강한 결혼생활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헌신하는 과정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버몬트 한인 침례교회는 텍사스 오렌지 지역 (휴스턴에서 동쪽으로 100 마일) 에 위치한 1984년 설립된 교회로서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실 목사님을 모집합니다.

- 목사 안수후 5년 이상 목회 담임목사 경험이 있으신분
- 최종학위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각 1부 (사본)
-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소지하신분

지원 서류

- 본인 및 가족소개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포함)
- 최근 설교 2편(동영상 Link 또는 File E-mail)

제출처

- 이메일: gmchoi311@gmail.com
- 문의 및 연락처: (337) 526-9360 / (409) 999-5659
- 우편메일: 12887 Interstate 10 East, Orange, TX 77630

기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버몬트한인침례교회
Beaumont Korean Baptist Church

시와그림

아내, 그대와 함께하고 있음에..

한해의 어두움이 지나가도 두렵지 않아요
내 곁에는 그대가 항상 있으니까요
함께하고 있음이 이토록 큰 빛 자국 인줄 몰랐어요.

새해의 태양이 떠올라도 수줍어 숨지 않을래요
희망의 풍선을 날려줄 그대가 있으니까요
함께하고 있음이 큰 용기를 내게 하네요.

삶의 추운 터널을 지나 인생의 돌들이 널린
험한 길을 걸으면서도 남편의 안스러움을 태우려는듯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로 다가와
팔짱을 끼워 넣고는 스스로 지팡이 버팀목이 되려하지요.

누구보다 힘든 세상을 헤쳐 나가려 곱던 얼굴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짐을 홀로 지다가 몸마저 무거워져
무던히 애쓰는 여인의 모습이 가끔은 꿈속에서도
그림처럼 그리워지곤해요.

흠흠~ 피곤의 신음소리가 잇사이로 흘러 나오고
무엇인가를 찾아 헤메이는듯 힘든 독백의 소리가
베개 사이로 들려오면 이 작은 가슴에 패인 고랑에
흥건히 고여 흐르지요.

그러나!
이제 바람속에 눈비가 흩뿌려 내려도 춥지 않아요
느낄 수 있는 그대의 체온이 옮겨오니까요
당신은 알고있나요?
뜨거운 열을 뿜어내는 난로보다 그대가 더 따뜻하다는 걸..

달린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찾아 들어와
내 머리맡에 앉아 아름다운 햇살로 가득 비춰
따사한 성소로 만들며 거룩한 향기가, 코끝을 찡하게 한 날들이
내가 지금 여기에 우뚝 서 있게 하지요.

세월속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보다
L.A의 밤과 낮의 사막의 온도보다
그대의 표정 변화가 내겐 더 크게 다가오지요.

이제 어제, 오늘, 내일, 한해, 두해를 돌아보아야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의 출발은..
그대가 내 곁에 다가온 순간 일꺼예요.

잘 사는 행복은 점었지만 기쁘게 사는 길은
그때 펼쳐져 있었지요
이제 마음의 낙너함은 그대의 따뜻한
동굴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감각이 나 홀로만은 아니기를
기도해요.

그대 곁에 머문 남편이...

시: 송일용 목사 kapcpastor@gmail.com
그림: 박민아 (Stephanie Park)



인/터/뷰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 성품학교 대표)

“자녀의 미래, 행복한 미래는 좋은 성품에 달려 있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 즉
성품 교육보다 중요한 요소는 없고
자녀의 미래가 '좋은 성품'에 달려 있
으며 '행복한 미래'가 '그 사람의 됨됨
이' 즉 그들의 '성품'에 있다고 믿기에
긴 세월동안 이 사역을 이어오고 있
는 이영숙 박사를 만나 좋은 나무 성
품학교에 관해 들어 보았다.

학교로 운영하면서 250명의 학생들
을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가르쳐왔고
2년 후인 지금은 크리스천 학교를 정
식으로 오픈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고 한다.

한 사람의 성품은 생각, 감정, 행동
의 표현

흔히 '성품'이란 정의에 대해서 이 박사
는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 사람의 성품은 생각, 감정, 행동
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
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 감정,
행동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해
야 합니다. 성격적 가치관들이 그들의
가치관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
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상생활
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배우고 체
험 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
은 나무 성품 학교 교육이랍니다.”라
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지난 4월 굿트리USA가 풀러
턴으로 이전한 뒤에는 방송사역과 온
라인으로 강연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 미주
복음방송에서 '이영숙 박사의 좋은성
품'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겁게 진행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세대의 위
기와 교회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사
역자 컨퍼런스도 세차례 줌(zoom)으
로 진행했습니다. 1차 컨퍼런스는 분
당우리교회(이찬수 목사 시무) 29개
교회의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열었으
며 2차는 미주와 한국의 사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3차는 LA지역 사역자들
을 위해 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자는 컨퍼런스를 어떻게 진
행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 박사는
“다음세대가 위기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냐고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이 되어 다음세대를 향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교회와 가정과
기독교학교들이 힘을 합쳐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다루게 되었다”고 들
려주었다.

이영숙 박사의 구체적인 강연은 11
월 15일과 22일, 중현 선교교회 제 9
기 세계관학교 강연을 통해 더 구체적
으로 만날 수 있다.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가정을 변화시킨 백
만명의 부모교육, 성품 교육을 통하여
이혼한 가정이 4년만에 다시 합치게



이영숙 박사

되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 자살하려고
준비했던 고3학생이 성품 교육을 통
하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
었다면서 변화된 이야기, 18년 동안의
성품교육으로 변화된 수많은 유치원
과 어린이집들의 사례들, 주일학교 부
흥을 만든 성품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이야기로 끊임없는 좋은 성품의 기적들
을 들려주었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과 시니
어 사역이 마지막 비전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에
목을 요절한 기자에게 이영숙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마7:17)”라는 말씀처럼 좋은 나
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듯
좋은 인생은 아름다운 성품이 열매입
니다. 좋은나무 성품 학교는 양 날개
전략을 씁니다. 한 날개는 일반인들을
위한 좋은 성품 교육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문화적 가치로 전략적으로 바
꾸어 펼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못 들
어가는 곳에도 '좋은 성품'이라는 인
성교육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
는 전략이지요. 훗날 북한이 문이 열
리면 그곳에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나무 성품 학교'를 세우는 것과
시니어 사역이 마지막 비전입니다.”
라고 말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
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잠언 22:6절)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육학을 선택했고 박사학위
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는 태아부터 시니어까지 우리 모두가
아이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이
인 '시니어'를 위한 성품 아카데미를
열어 '노년기를 위한 성품 학교'를 진
행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하며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자세한 것은
(201)693-1976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지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3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신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이사야 52:13 - 53:12
2. 신약주해: 히브리서 10:19 - 25
3. 논문제출: 포스트 현대의 개혁주의 교회론을 논하라 - 메타버스와 성찬
4. 설교본문: 구약 - 야모스 8:11-14, 신약 - 딤후 4:1-5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3년 3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7회 총회기간(5월23일 - 26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3년 5월 22일(월) - 23일(화)
장소: 퀸즈장로교회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 시무)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3년 6월30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박희근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2,23일)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성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주소 :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전화 : 917-254-0887 / 이메일 heepark91@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고시부 서기: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홍기표 목사
서 기 : 안병권 목사
고시부부장 : 손기성 목사
고시부서기 : 박희근 목사